

'94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 분석

김 두 화

목 차

- I. 서 론
- II. 조사 방법 및 내용
- III. 결과 및 분석
- IV. 요약 및 제언

I. 서 론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진리탐구와 인격의 균형적인 발달을 꾀하고,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들이 고등학교 까지의 생활은 타의에 의한 획일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대학에서는 자율적이고, 스스로 계획하여 실천하며,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큰 변화의 생활을 맞게 되고, 또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 혼란과 적응상의 많은 문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기 위해서는 신입생에 관한 제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 조사는 신입생들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그 주변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합리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는 매년 신입생 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본 보고서는 작년('93) 설문지의 일부를 수정하여 '94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실시하고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Ⅱ. 조사 방법 및 내용

1. 조사 대상

본 조사의 대상은 1994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2,143명중 응답자 1,7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단과대학별 재적학생과 응답자수, 그리고 그 비율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응답자 분포

대학 구분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계
	재적학생수	남 76 여 272 계 348	남 117 여 62 계 179	남 171 여 176 계 347	남 28 여 106 계 134	남 178 여 61 계 239	남 168 여 31 계 199	남 160 여 140 계 300	
응답자수	남 0(79.0) 여 241(88.6) 계 301(86.5)	남 66(56.4) 여 51(82.3) 계 117(65.4)	남 126(73.7) 여 147(83.5) 계 273(78.7)	남 23(82.1) 여 99(93.4) 계 122(91.0)	남 149(83.7) 여 58(95.1) 계 207(86.6)	남 137(81.6) 여 116(93.6) 계 233(83.4)	남 117(73.1) 여 116(82.9) 계 233(77.7)	남 222(77.6) 여 107(95.5) 계 329(82.7)	남 900(75.9) 여 848(88.6) 계 1,748(81.6)

* ()안은 재적학생수에 대한 응답자수의 백분율임.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조사는 '94년 3월 2일 부터 3월 5일 까지 각 학과별로 실시되었고, 동시에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실시시간은 대략 50분 정도였으며,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는 각 학과 조교들이 담당하였다. 조사도구는 1994학년도 신입생 실태 조사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이 설문지는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93학년도 설문지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적 배경(17개 문항) : 성별, 연령, 출생 순위, 본적 및 성장지, 입학후 거주형태, 재학 중 거주 예정지, 출신 고등학교 계열 및 종류, 재수 여부 및 이유, 종교, 신체적 건강상태, 음주 및 흡연여부, 자긍심, 목표와 소망에 대한 성취 가능성
- 2) 가정 환경(16개 문항) :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연령 및 학력, 부모의 생존여

- 부, 가족수, 가족의 거주지, 주택의 형태, 보호자의 직업 및 직종, 가정의 월 수입 및 경제 수준, 부모의 종교, 학생의 가정 분위기, 부모의 양육 태도, 가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부모와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해의 차이 정도, 가족중 개인적 문제의 의논 상대
- 3) 대학 및 학과 선택의 기준(7개 문항) : 대학 진학 목적, 제주대에 지원한 동기 및 긍지심, 학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 및 사전 지식의 정도, 학과를 선택한 시기,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 4) 대학생활(6개 문항) : 장래 대학생활에의 적응여부, 대학 재학중 예상되는 문제,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 대학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 및 공부 방법
- 5) 교수와의 관계(2개 문항) : 교수와의 인간관계 여부, 교수에 대한 기대
- 6) 대인관계(7개 문항) : 친한 친구수, 사귀고 싶은 친구의 유형, 대인관계에 대한 지각,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이성교제의 경험여부, 이성교제에 대한 지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논 대상
- 7) 서어클 및 부직활동(5개 문항) : 서어클활동 희망 분야, 읽고 싶은 도서의 분야, 학비 조달방법,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및 그 이유
- 8)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5개 문항) :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 정도,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차이 정도,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9) 진로관계(3개 문항) : 대학 졸업후의 계획, 직업 선택의 기준,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 10)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기대(2개 문항) :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여부 및 받고 싶은 분야

3. 자료 처리

모든 자료는 전산처리 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단과대학 및 성별로 응답 내용을 집계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Ⅲ. 결과 및 분석

1. 인적 배경

1) 성 별

'94학년도 신입생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55.3%, 여학생이 44.7%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포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93학년도 신입생 남학생이 55.2%, 여학생이 44.8%). 작년도에 비해 남학생이 증가된 대학은 인문대(17.7%→21.8%), 법정대(61.9%→65.4%), 경상대(45.2%→49.3%), 사범대(16.4%→20.9%)이며, 여학생이 증가된 대학은 농과대(25.0%→25.5%), 해양대(11.0%→15.6%), 자연대(43.3%→46.7%), 공과대(26.0%→28.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남녀 구성비가 남학생이 반이상 차지하는 대학순으로 보며는 해양대(84.4%), 농과대(74.5%), 공과대(71.9%), 법정대(65.4%), 자연대(53.3%)이며, 여학생이 반이상 차지하는 순으로는 사범대(79.1%), 인문대(78.2%), 경상대(50.7%)로 나타났다.

<표 III-1>

성 별

대학 성별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남	76	21.8	117	65.4	171	49.3	28	20.9	178	74.5	168	84.4	160	53.3	286	71.9	1,186	55.3
여	272	78.2	62	34.6	176	50.7	106	79.1	61	25.5	31	15.6	140	46.7	112	28.1	957	44.7
계	348	100.0	179	100.0	347	100.0	134	100.0	239	100.0	199	100.0	300	100.0	398	100.0	2,143	100.0

2) 연 령

신입생의 연령('94. 3. 1을 기준으로 한 만나이)을 살펴보면, 만18세가 6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만19세로 20.0%, 만20세가 5.5%를 차지했다. 남자의 경우에는 만18세(60.0%), 19세(23.0%), 20세(7.2%)의 순서로 분포 되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만18세(70.0%), 19세(16.0%), 17세(5.7%)의 순서로 나타났다. 작년도와 비교하면, 만18세인 경우, 69.8%→65.0%로 감소하였고, 만19세는 16.7%→23.0% 증가하였으며, 만20세인 경우, 3.5%→5.5% 증가하였다.

<표 III-2>

연 령

연 령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16세 이하	-	-	-	-	-	-	-	-	-	-	-	-	-	-	1	0.3	1	0.1	-	-	1	0.1
17세	14	4.7	5	4.3	9	3.3	8	6.6	4	1.9	4	2.4	9	3.9	9	2.7	62	3.5	14	1.6	48	5.7
18세	182	60.0	68	58.0	178	65.0	93	76.0	118	57.0	128	77.0	153	66.0	216	66.0	1136	65.0	544	60.0	592	70.0
19세	60	20.0	26	22.0	48	18.0	17	14.0	56	27.0	21	13.0	46	20.0	69	21.0	343	20.0	208	23.0	135	16.0
20세	22	7.3	4	3.4	14	5.1	2	1.6	19	9.2	8	4.8	8	3.4	20	6.1	97	5.5	65	7.2	32	3.8
21세	13	4.3	4	3.4	7	2.6	-	-	4	1.9	2	1.2	6	2.6	6	1.8	42	2.4	24	2.7	18	2.1
22세	3	1.0	1	0.9	3	1.1	-	-	2	1.0	-	-	1	0.4	4	1.2	14	0.8	9	1.0	5	0.6
23세	-	-	2	1.7	3	1.1	-	-	1	0.5	-	-	2	0.9	1	0.3	9	0.5	7	0.8	2	0.2
24세	-	-	1	0.9	2	0.7	-	-	-	-	-	-	3	1.3	1	0.3	7	0.4	6	0.7	1	0.1
25세 이상	2	0.7	6	5.1	8	2.9	1	0.8	2	1.0	1	0.6	-	-	-	-	20	1.1	18	2.0	2	0.2
무 응 답	5	1.7	-	-	1	0.4	1	0.8	1	0.5	2	1.2	5	2.1	2	0.6	17	1.0	5	0.6	12	1.4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3) 출생 순위

신입생들의 출생 순위를 알아본 결과, 첫번째가 전체의 2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두번째로 25.0%, 세번째가 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네번째와 다섯번째 이후에 출생한 학생도 각각 12.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3>

출생 순위

출생순위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첫 번째	90	30.0	42	36.0	70	26.0	32	26.0	81	39.0	41	25.0	66	28.0	88	27.0	510	29.0	261	29.0	249	29.0
두 번째	78	26.0	20	17.0	58	21.0	33	27.0	48	23.0	42	25.0	71	30.0	88	27.0	438	25.0	218	24.0	220	26.0
세 번째	48	16.0	24	21.0	67	25.0	27	22.0	38	18.0	44	27.0	53	23.0	65	20.0	366	21.0	200	22.0	166	20.0
네 번째	44	15.0	11	9.4	33	12.0	16	13.0	18	8.7	24	14.0	28	12.0	41	12.0	215	12.0	110	12.0	105	12.0
다섯번째 이 후	41	14.0	19	16.0	45	16.0	14	11.0	22	11.0	15	9.0	15	6.4	46	14.0	217	12.0	111	12.0	106	13.0
무 응 답	-	-	1	0.9	-	-	-	-	-	-	-	-	-	-	1	0.3	2	0.1	-	-	2	0.2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4) 학생의 본적지

신입생의 본적지를 살펴보면, 제주시 26.0%, 서귀포시 12.0%, 그리고 애월읍이 8.6%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타도인 경우도 11.6%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4>

학생의 본적지

대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제주시	72	24.0	35	30.0	82	30.0	36	30.0	41	20.0	37	22.0	59	25.0	90	27.0	452	26.0	233	26.0	219	26.0
서귀포시	39	13.0	12	10.0	26	9.5	21	17.0	18	8.7	22	13.0	26	11.0	47	14.0	211	12.0	84	9.3	127	15.0
애월읍	24	8.0	10	8.5	27	9.9	6	4.9	21	10.0	11	6.6	22	9.4	30	9.1	151	8.6	85	9.4	66	7.8
한림읍	16	5.3	9	7.7	21	7.7	6	4.9	13	6.3	7	4.2	12	5.2	28	8.5	112	6.4	70	7.8	42	5.0
한경면	16	5.3	3	2.6	14	5.1	7	5.7	4	1.9	6	3.6	8	3.4	16	4.9	74	4.2	43	4.8	31	3.7
대정읍	8	2.7	8	6.8	18	6.6	7	5.7	15	7.2	15	9.0	16	6.9	17	5.2	104	5.9	52	5.8	52	6.1
안덕면	15	5.0	4	3.4	8	2.9	2	1.6	2	1.0	6	3.6	3	1.3	6	1.8	46	2.6	21	2.3	25	2.9
남원읍	11	3.7	7	6.0	14	5.1	6	4.9	11	5.3	6	3.6	15	6.4	11	3.3	81	4.6	35	3.9	46	5.4
표선면	10	3.3	5	4.3	4	1.5	1	0.8	2	1.0	7	4.2	7	3.0	5	1.5	41	2.3	24	2.7	17	2.0
성산읍	13	4.3	2	1.7	13	4.8	10	8.2	5	2.4	16	9.6	8	3.4	15	4.6	82	4.7	36	4.0	46	5.4
구좌읍	21	7.0	5	4.3	18	6.6	5	4.1	10	4.8	8	4.8	11	4.7	14	4.3	92	5.3	45	5.0	47	5.5
조천읍	18	6.0	6	5.1	5	1.8	5	4.1	9	4.3	9	5.4	7	3.0	15	4.6	74	4.2	36	4.0	38	4.5
우도면	-	-	1	0.9	2	0.7	-	-	1	0.5	3	1.8	1	0.4	1	0.3	9	0.5	6	0.7	3	0.4
추자면	-	-	-	-	-	-	-	-	2	1.0	1	0.6	1	0.4	1	0.3	5	0.3	4	0.4	1	0.1
서울	4	1.3	4	3.4	4	1.5	1	0.8	10	4.8	2	1.2	7	3.0	3	0.9	35	2.0	25	2.8	10	1.2
부산	3	1.0	-	-	1	0.4	-	-	6	2.9	3	1.8	4	1.7	4	1.2	21	1.2	12	1.3	9	1.1
대구	1	0.3	-	-	1	0.4	-	-	3	1.4	-	-	-	-	1	0.3	6	0.3	3	0.3	3	0.4
대전	-	-	-	-	-	-	-	-	-	-	-	-	1	0.4	1	0.3	2	0.1	2	0.2	-	-
인천	-	-	-	-	-	-	-	-	1	0.5	-	-	-	-	-	-	1	0.1	1	0.1	-	-
광주	2	0.7	-	-	1	0.4	-	-	2	1.0	-	-	1	0.4	-	-	6	0.3	2	0.2	4	0.5
경기	3	1.0	-	-	-	-	-	-	7	3.4	2	1.2	2	0.9	2	0.6	16	0.9	13	1.4	3	0.4
강원	-	-	-	-	-	-	-	-	-	-	1	0.6	1	0.4	2	0.6	4	0.2	2	0.2	2	0.2
경북	2	0.7	2	1.7	1	0.4	1	0.8	7	3.4	2	1.2	2	0.9	1	0.3	18	1.0	12	1.3	6	0.7
경남	3	1.0	-	-	-	-	2	1.6	7	3.4	1	0.6	3	1.3	5	1.5	21	1.2	9	1.0	12	1.4
충북	4	1.3	-	-	-	-	-	-	-	-	-	-	1	0.4	-	-	5	0.3	3	0.3	2	0.2
충남	2	0.7	-	-	1	0.4	-	-	1	0.5	-	-	3	1.3	1	0.3	8	0.5	5	0.6	3	0.4
전북	2	0.7	1	0.9	1	0.4	1	0.8	4	1.9	1	0.6	2	0.9	2	0.6	14	0.8	9	1.0	5	0.6
전남	11	3.7	1	0.9	9	3.3	4	3.3	5	2.4	-	-	8	3.4	8	2.4	46	2.6	20	2.2	26	3.1
해외	-	-	-	-	-	-	-	-	-	-	-	-	-	-	-	-	-	-	-	-	-	-
무응답	1	0.3	2	1.7	2	0.7	1	0.8	-	-	-	-	2	0.9	3	0.9	11	0.6	8	0.9	3	0.4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5) 학생의 성장지

성장지를 알아보면, 제주시 49.0%, 서귀포시 14.0%, 애월읍이 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인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다음으로 남원읍이 4.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타도인 경우도 6.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과대학별로 보면, 인문대(54.0%), 경상대(53.0%), 법정대와 사범대(52.0%), 공과대(50.0%) 순으로 제주시에서 자란 학생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농과대 신입생중 서울에서 자란 학생이 5.8%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 III-5>

학생의 성장지

대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제주시	162	54.0	61	52.0	144	53.0	64	52.0	73	35.0	67	40.0	111	48.0	166	50.0	848	49.0	435	48.0	413	49.0
서귀포시	44	15.0	13	11.0	30	11.0	19	16.0	27	13.0	28	17.0	35	15.0	57	17.0	253	14.0	105	12.0	148	17.0
애월읍	5	1.7	9	7.7	9	3.3	2	1.6	10	4.8	5	3.0	14	6.0	19	5.8	73	4.2	50	5.6	23	2.7
한림읍	6	2.0	5	4.3	10	3.7	4	3.3	8	3.9	4	2.4	8	3.4	16	4.9	61	3.5	39	4.3	22	2.6
한경면	6	2.0	2	1.7	6	2.2	3	2.5	3	1.4	4	2.4	3	1.3	6	1.8	33	1.9	20	2.2	13	1.5
대정읍	5	1.7	3	2.6	11	4.0	5	4.1	10	4.8	13	7.8	12	5.2	8	2.4	67	3.8	34	3.8	33	3.9
안덕면	8	2.7	3	2.6	9	3.3	-	-	1	0.5	2	1.2	3	1.3	2	0.6	28	1.6	14	1.6	14	1.7
남원읍	7	2.3	5	4.3	13	4.8	3	2.5	10	4.8	7	4.2	10	4.3	9	2.7	64	3.7	28	3.1	36	4.2
표선면	6	2.0	4	3.4	5	1.8	-	-	-	-	7	4.2	3	1.3	3	0.9	28	1.6	15	1.7	13	1.5
성산읍	7	2.3	-	-	13	4.8	7	5.7	4	1.9	8	4.8	4	1.7	7	2.1	50	2.9	20	2.2	30	3.5
구좌읍	9	3.0	2	1.7	8	2.9	5	4.1	5	2.4	4	2.4	2	0.9	7	2.1	42	2.4	20	2.2	22	2.6

대 학 성장지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조 천 읍	11	37	2	17	3	11	2	16	7	34	8	48	4	17	9	27	46	26	23	26	23	27
우 도 면	-	-	1	09	2	07	-	-	1	05	-	-	1	04	1	03	6	03	3	03	3	04
추 자 면	-	-	-	-	-	-	-	-	1	05	1	06	1	04	-	-	3	02	3	03	-	-
서 울	5	17	2	17	2	07	2	16	12	58	2	12	8	34	4	12	37	21	28	31	9	11
부 산	3	10	-	-	1	04	-	-	8	39	2	12	2	09	2	06	18	10	8	09	10	12
대 구	1	03	-	-	-	-	-	-	1	05	1	06	1	04	3	09	7	04	5	06	2	02
대 전	-	-	-	-	-	-	-	-	-	-	-	-	1	04	-	-	1	01	1	01	-	-
인 천	-	-	-	-	-	-	-	-	2	10	-	-	-	-	-	-	2	01	2	02	-	-
광 주	1	03	-	-	2	07	-	-	1	05	-	-	1	04	-	-	5	03	5	06	-	-
경 기	1	03	-	-	-	-	-	-	4	19	1	06	2	09	1	03	9	05	7	08	2	02
강 원	-	-	-	-	-	-	-	-	-	-	-	-	-	-	-	-	-	-	-	-	-	-
경 북	-	-	-	-	-	-	1	08	5	24	-	-	-	-	1	03	7	04	5	06	2	02
경 남	-	-	-	-	-	-	-	-	6	29	1	06	1	04	1	03	9	05	8	09	1	01
충 북	1	03	-	-	-	-	-	-	-	-	-	-	-	-	-	-	1	01	1	01	-	-
충 남	-	-	-	-	-	-	-	-	-	-	-	-	-	-	-	-	-	-	-	-	-	-
전 북	-	-	1	09	-	-	-	-	2	10	-	-	-	-	-	-	3	02	3	03	-	-
전 남	1	03	-	-	-	-	-	-	3	14	-	-	-	-	1	03	5	03	2	02	3	04
해 외	-	-	-	-	-	-	-	-	-	-	-	-	-	-	-	-	-	-	-	-	-	-
무 응 답	12	40	4	34	5	18	5	41	3	14	1	06	6	26	6	18	42	24	16	18	26	31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6) 입학후 거주형태

입학후 거주하고 싶은 곳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기집에 거주할 학생이 7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취(18.0%), 친척집(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자기집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1%가 더 많았고, 반면에 자취와 친척집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각각 7.0%, 0.8%가 더 많았다. 작년에 비해 하숙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1.8%→1.3%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기숙사에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2.7%로 작년과 똑 같이 나타난 반면에, 남학생인 경우는 작년에 비해 2.7%→5.0%로 증가하였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농과대의 경우, 하숙, 자취, 친척집, 기숙사에 거주하고자 하는 비율이 각각 3.9%, 15.0%, 5.3%, 13.0%로 타 단과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서 제주시 이외의 지역(35.0%)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6>

입학후 거주형태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자 가	232	77.0	84	72.0	197	72.0	93	76.0	125	60.0	118	71.0	172	74.0	244	74.0	1265	72.0	658	73.0	607	72.0
하 숙	-	-	-	-	2	0.7	1	0.8	8	3.9	2	1.2	4	1.7	5	1.5	22	1.3	16	1.8	6	0.7
자 취	56	19.0	22	19.0	54	20.0	21	17.0	32	15.0	36	22.0	35	15.0	53	16.0	309	18.0	127	14.0	182	21.0
친 척 집	5	1.7	6	5.1	14	5.1	4	3.3	11	5.3	5	3.0	15	6.4	17	5.2	77	4.4	36	4.0	41	4.8
기 숙 사	2	0.7	2	1.7	2	0.7	2	1.6	26	13	4	2.4	4	1.7	5	1.5	47	2.7	45	5.0	2	0.2
기 타	5	1.7	3	2.6	4	1.5	-	-	5	2.4	1	0.6	2	0.9	3	0.9	23	1.3	15	1.7	8	0.9
무 응 답	1	0.3	-	-	-	-	1	0.8	-	-	-	-	1	0.4	2	0.6	5	0.3	3	0.3	2	0.2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7) 재학중 거주 예정지

신입생들의 재학중 거주지는 제주시 80.0%, 서귀포시 7.5%, 애월읍 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도의 경우, 전지역이 1시간 이내의 통학거리에 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표 III-7> 재학중 거주 예정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249	83.0	99	85.0	225	82.0	101	83.0	167	81.0	121	73.0	181	78.0	256	78.0	1,399	80.0	706	78.0	693	82.0
서귀포시	20	6.6	9	7.7	18	6.6	8	6.6	12	5.8	16	9.6	19	8.2	29	8.8	131	7.5	62	6.9	69	8.1
애 월 읍	6	2.0	2	1.7	5	1.8	2	1.6	6	2.9	5	3.0	13	5.6	11	3.3	50	2.9	31	3.4	19	2.2
한 림 읍	5	1.7	2	1.7	4	1.5	2	1.6	6	2.9	2	1.2	4	1.7	8	2.4	33	1.9	22	2.4	11	1.3
한 경 면	-	-	-	-	1	0.4	-	-	1	0.5	-	-	-	-	-	-	2	0.1	2	0.2	-	-
대 정 읍	1	0.3	-	-	3	1.1	1	0.8	4	1.9	5	3.0	4	1.7	3	0.9	21	1.2	12	1.3	9	1.1
안 덕 면	3	1.0	-	-	2	0.7	-	-	-	-	-	-	1	0.4	1	0.3	7	0.4	3	0.3	4	0.5
남 원 읍	1	0.3	1	0.9	4	1.5	-	-	3	1.4	2	1.2	5	2.1	4	1.2	20	1.1	10	1.1	10	1.2
표 선 면	-	-	-	-	1	0.4	-	-	-	-	3	1.8	-	-	-	-	4	0.2	4	0.4	-	-
성 산 읍	-	-	-	-	1	0.4	-	-	-	-	2	1.2	-	-	-	-	3	0.2	3	0.3	-	-
구 좌 읍	3	1.0	-	-	4	1.5	3	2.5	2	1.0	3	1.8	1	0.4	2	0.6	18	1.0	8	0.9	10	1.2
조 천 읍	12	4.0	1	0.9	4	1.5	4	3.3	5	2.4	7	4.2	3	1.3	10	3.0	46	2.6	26	2.9	20	2.4
우 도 면	-	-	-	-	-	-	-	-	-	-	-	-	-	-	-	-	-	-	-	-	-	-
추 자 면	-	-	-	-	-	-	-	-	-	-	-	-	-	-	-	-	-	-	-	-	-	-
무 응 답	1	0.3	3	2.6	1	0.4	1	0.8	1	0.5	-	-	2	0.9	5	1.5	14	0.8	11	1.2	3	0.4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8) 출신 고등학교 계열

출신 고등학교 계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인문계 출신이 9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상업에 5.9%, 공업계 1.2%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인문계 다음으로 대부분이 상업계 출신인데 비해 공과대인 경우는 공업계도 3.6%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II-8> 출신 고등학교 계열

대 학 출신 고교계열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인 문 계	277	92.0	108	92.0	230	84.0	118	97.0	190	92.0	156	94.0	224	96.0	304	92.0	1607	92.0	802	89.0	805	95.0
공 업 계	2	0.7	1	0.9	2	0.7	-	-	1	0.5	1	0.6	2	0.9	12	3.6	21	1.2	21	2.3	-	-
상 업 계	18	6.0	6	5.1	41	15.0	3	2.5	14	6.8	8	4.8	5	2.1	9	2.7	104	5.9	65	7.2	39	4.6
농 업 계	2	0.7	1	0.9	-	-	1	0.8	1	0.5	-	-	-	-	2	0.6	7	0.4	6	0.7	1	0.1
수 산 계	-	-	-	-	-	-	-	-	-	-	1	0.6	-	-	-	-	1	0.1	1	0.1	-	-
검정고시	-	-	-	-	-	-	-	-	-	-	-	-	-	-	1	0.3	1	0.1	1	0.1	-	-
기 타	2	0.7	1	0.9	-	-	-	-	1	0.5	-	-	2	0.9	-	-	6	0.3	3	0.3	3	0.4
무 응 답	-	-	-	-	-	-	-	-	-	-	-	-	-	-	1	0.3	1	0.1	1	0.1	-	-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9) 출신 고등학교 종류

출신 고등학교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사립, 공립이 각각 50.0%, 2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출신 고등학교 종류

대 학 출신 고교종류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국 립	52	17.0	24	21.0	41	15.0	19	16.0	43	21.0	50	30.0	65	28.0	65	20.0	359	21.0	204	23.0	155	18.0
공 립	87	29.0	30	26.0	77	28.0	43	35.0	71	34.0	30	18.0	63	27.0	90	27.0	491	28.0	223	25.0	268	32.0
사 립	158	52.0	62	53.0	154	56.0	60	49.0	91	44.0	84	51.0	102	41.0	167	51.0	878	50.0	460	51.0	418	49.0
기 타	1	0.3	-	-	-	-	-	-	-	-	-	-	-	-	1	0.3	2	0.1	1	0.1	1	0.1
무 응 답	3	1.0	1	0.9	1	0.4	-	-	2	1.0	2	1.2	3	1.3	6	1.8	18	1.0	12	1.3	6	0.7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0) 재수여부

재수여부 및 기간을 알아본 결과, 재수를 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이 86.0%이며, 1년 이상 재수한 학생의 비율은 13.8%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18.8%, 여학생이 8.6%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재수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많았다. 단과대학별로는 재수를 경험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법정대로서 18.0%를 나타냈으며, 사범대와 농과대인 경우는 각각 5.7%, 6.0%로 다른 단과대학 보다 비교적 낮았다.

<표 III-10> 재수여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안 했 다	247	82.0	95	81.0	228	84.0	115	94.0	175	85.0	156	94.0	207	89.0	227	84.0	1500	86.0	727	81.0	773	91.0
1년 재수	40	13.0	11	9.4	27	9.9	6	4.9	27	13.0	8	4.8	15	6.4	35	11.0	169	9.7	113	13.0	56	6.6
2년 재수	9	3.0	4	3.4	10	3.7	-	-	4	1.9	2	1.2	7	3.0	10	3.0	46	2.6	34	3.8	12	1.4
3년 이상	3	1.0	6	5.1	8	2.9	1	0.8	-	-	-	-	3	1.3	6	1.8	27	1.5	22	2.4	5	0.6
무 응 답	2	0.7	1	0.9	-	-	-	-	1	0.5	-	-	1	0.4	1	0.3	6	0.3	4	0.4	2	0.2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1) 재수를 하게 된 이유

신입생중에 재수를 하게 된 이유로서는 바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가 5.7%, 다음으로는 실력이 모자라서가 5.0%를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바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한 이유로는 법정대, 공과대, 경상대, 자연대, 사범대, 해양대 순으로 각각 7.7%, 7.6%, 7.0%, 5.2%, 4.1%, 3.6%로 나타났다.

<표 III-11>

재수를 하게 된 이유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바른대학에 가기 위해	14	4.7	9	7.7	19	7.0	5	4.1	9	4.3	6	3.6	12	5.2	25	7.6	99	5.7	67	7.4	32	3.8
실 력 이 모자라서	25	8.3	7	6.0	12	4.4	1	0.8	10	4.8	3	1.8	11	4.7	19	5.8	88	5.0	65	7.2	23	2.7
경제적인사정 의 해 서	3	1.0	2	1.7	3	1.1	1	0.8	-	-	-	-	-	-	1	0.3	10	0.6	6	0.7	4	0.5
기 타	15	5.0	9	7.7	14	5.1	1	0.8	19	9.2	3	1.8	10	4.3	11	3.3	82	4.7	53	5.9	29	3.4
무 응 답	244	81.0	90	77.0	225	82.0	114	93.0	169	82.0	154	93.0	200	86.0	273	83.0	1,469	84.0	709	79.0	760	90.0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2) 학생의 종교

신입생이 61.0%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입생인 경우, 불교가 17.0%, 천주교와 기독교가 각 9.7%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녀별로는 불교인 경우, 남학생이 18.0%, 여학생이 15.0%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천주교는 남학생이 7.7%, 여학생이 12.0%이며, 기독교인 경우는 남학생이 9.6%, 여학생이 9.8%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작년도에 비해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의비율(62.6%→61.0%)이 낮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 경우, 작년도에는 불교(17.2%), 기독교(10.2%), 천주교(8.6%)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 경우, 대부분 불교인 학생이지만, 사범대인 경우는 기독교(16.0%), 천주교(12.0%), 불교(11.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2>

학생의 종교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불 교	49	16.0	22	19.0	48	18.0	13	11.0	37	18.0	31	19.0	42	18.0	54	16.0	296	17.0	165	18.0	131	15.0
천 주교	34	11.0	14	12.0	28	10.0	15	12.0	20	9.7	6	3.6	24	10.0	29	8.8	170	9.7	69	7.7	101	12.0
기 독교	40	13.0	9	7.7	27	9.9	19	16.0	23	11.0	12	7.2	20	8.6	19	5.8	169	9.7	86	9.6	83	9.8
유 교	-	-	-	-	-	-	-	-	2	0.1	-	-	-	-	-	-	2	0.1	2	0.2	-	-
천 도교	-	-	-	-	-	-	-	-	-	-	-	-	-	-	-	-	-	-	-	-	-	-
원 불교	2	0.7	1	0.9	1	0.4	-	-	-	-	-	-	-	-	2	0.6	6	0.3	3	0.3	3	0.4
기 타	1	0.3	1	0.9	3	1.1	-	-	1	0.5	3	1.8	3	1.3	5	1.5	17	1.0	11	1.2	6	0.7
없 음	172	57.0	70	60.0	164	60.0	75	61.0	123	59.0	114	69.0	140	60.0	216	66.0	1074	61.0	555	62.0	519	61.0
무 응 답	3	1.0	-	-	2	0.7	-	-	1	0.5	-	-	4	1.7	4	1.2	14	0.8	9	1.0	5	0.6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3) 학생의 신체적 건강상태

신입생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하다가 55.0%, 보통이다가 40.0%로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는 허약하다가 4.2%로 남학생이 3.7%, 그리고 여학생이 4.8%로 허약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작년과 비교해서 허약하다고 대답한 남학생이 4.3%→3.7%로 감소하여 건강한 학생이 많아졌고, 여학생인 경우, 3.3%→4.8% 증가하여 여학생이 작년 보다 건강상태가 다소 허약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3>

학생의 신체적 건강상태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건강하다	151	50.0	65	56.0	149	55.0	73	60.0	126	61.0	93	56.0	137	59.0	172	52.0	966	55.0	508	56.0	458	54.0
보통이다	135	45.0	49	42.0	105	38.0	42	34.0	76	37.0	69	42.0	86	37.0	141	43.0	703	40.0	355	39.0	348	41.0
허약하다	13	4.3	3	2.6	19	7.0	7	5.7	4	1.9	4	2.4	9	3.9	15	4.6	74	4.2	33	3.7	41	4.8
무 응 답	2	0.7	-	-	-	-	-	-	1	0.5	-	-	1	0.4	1	0.3	5	0.3	4	0.4	1	0.1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4) 음주여부

술을 마시는 학생이 69.0%로 작년 55.8%에 비해 13.2%가 증가하였고, 안 마시는 학생이 30.0%로 마시는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남·여학생의 비율이 작년에 비해 모두 8.1%, 20.4%가 증가하였고, 특히 여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경우가 현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단과대학별로는 대부분 술을 마시는 학생의 비율이 안마시는 학생의 비율 보다 높은데 반하여, 사범대인 경우는 43.0%, 54.0%로 마신다와 안 마신다의 비율로 나타내고 있었다.

<표 III-14>

음주여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마 신 다	168	56.0	84	72.0	192	70.0	53	43.0	140	68.0	144	87.0	160	69.0	257	78.0	1,198	69.0	755	84.0	443	52.0
안 마신다	125	42.0	32	27.0	80	29.0	66	54.0	66	32.0	22	13.0	73	31.0	68	21.0	532	30.0	139	15.0	393	46.0
무 응 답	8	2.7	1	0.9	1	0.4	3	2.5	1	0.5	-	-	-	-	4	1.2	18	1.0	6	0.7	12	1.4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5) 흡연여부

신입생의 흡연여부를 묻은 결과, 안 피우는 학생이 74.0%, 피우는 학생이 25.0%인데 대체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단과대학들이 많으나, 해양대인 경우는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별로는 흡연하는 남학생의 비율이 50.0%, 피우지 않는 학생이 49.0%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의 신입생과 비교해볼때 남학생이 39.7%→49.0%로 9.3%가 증가했고, 여학생은 0.8%→0.2%로 0.6%가 감소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흡연률이 22.0%→25.0%로 증가되었다.

<표 III-15>

흡연여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피 운 다	31	10.0	27	23.0	73	27.0	8	6.6	77	37.0	83	50.0	63	27.0	83	25.0	445	25.0	443	49.0	2	0.2
안 피운다	265	88.0	88	75.0	198	73.0	112	92.0	130	63.0	83	50.0	170	73.0	242	74.0	1,288	74.0	450	50.0	838	99.0
무 응 답	5	1.7	2	1.7	2	0.7	2	1.6	-	-	-	-	-	-	4	1.2	15	0.9	7	0.8	8	0.9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6) 자신에 대한 자긍심

학생 자신에 대한 자긍심은 보통이다(56.0%), 자랑스럽다(30.0%), 대단히 자랑스럽다(7.2%)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부끄럽다, 대단히 부끄럽다에 응답한 학생도 각각 5.4%, 0.9%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과대학별로는 농과대 학생이 대단히 자랑스럽다(13.0%)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부끄럽다와 대단히 부끄럽다에 해양대 신입생이 6.4%, 사범대생이 2.5%로 나타나고 있었다. 남녀별로 남학생(11.0%)이 여학생(2.7%)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에 반하여 남학생인 경우, 부끄럽다, 대단히 부끄럽다에 5.8%, 1.1%로 여학생인 경우 보다 각각 5.0%, 0.6%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통 이상으로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신입생이 작년도 95.6%, 금년도 93.2%로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6> 자신에 대한 자긍심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대 단 히 자랑스럽다	15	5.0	11	9.4	18	6.6	5	4.1	26	13.0	15	9.0	14	6.0	22	6.7	126	7.2	103	11.0	23	2.7
자랑스럽다	77	26.0	37	32.0	98	36.0	42	34.0	58	28.0	54	33.0	62	27.0	88	27.0	516	30.0	259	29.0	257	30.0
보통이다	185	61.0	61	52.0	137	50.0	69	57.0	109	53.0	86	52.0	137	59.0	194	59.0	978	56.0	465	52.0	513	60.0
부끄럽다	19	6.3	7	6.0	14	5.1	2	1.6	9	4.3	8	4.8	15	6.4	20	6.1	94	5.4	52	5.8	42	5.0
대 단 히 부끄럽다	1	0.3	1	0.9	2	0.7	3	2.5	2	1.0	2	1.2	3	1.3	1	0.3	15	0.9	10	1.1	5	0.6
무 응 답	4	1.3	-	-	4	1.5	1	0.8	3	1.4	1	0.6	2	0.9	4	1.2	19	1.1	11	1.2	8	0.9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7) 목표와 소망에 대한 성취 가능성

신입생들의 장래 목표와 소망에 대한 성취 가능성을 알아본 결과, 이루어질 것 같다(35.0%),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32.0%)로 긍정적인 반응이 67.0%인 반면, 부정적인 반응인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다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가 3.4%가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에 법정대(39.0%), 인문대(36.0%), 경상대(34.0%) 순이며, 이루어질 것이다에 사범대(41.0%), 농과대(39.0%), 공과대(38.0%)가, 잘 모르겠다에 해양대(34.0%), 자연대(33.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대학들이다. 남녀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이루어질 것 같다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에 각각 5.0%, 2.0% 더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III-17> 목표와 소망에 대한 성취 가능성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107	36.0	46	39.0	93	34.0	44	36.0	69	33.0	46	28.0	68	29.0	93	28.0	566	32.0	283	31.0	283	33.0
이루어질 것 같다	101	34.0	37	32.0	91	33.0	50	41.0	81	39.0	55	33.0	75	32.0	126	38.0	616	35.0	297	33.0	319	38.0
잘 모르겠다	76	25.0	29	25.0	82	30.0	24	20.0	52	25.0	57	34.0	78	33.0	96	29.0	494	28.0	272	30.0	222	26.0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다	7	2.3	4	3.4	5	1.8	2	1.6	2	1.0	5	3.0	10	4.3	9	2.7	44	2.5	28	3.1	16	1.9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6	2.0	1	0.9	1	0.4	1	0.8	2	1.0	1	0.6	-	-	4	1.2	16	0.9	13	1.4	3	0.4
무 응 답	4	1.3	-	-	1	0.4	1	0.8	1	0.5	2	1.2	2	0.9	1	0.3	12	0.7	7	0.8	5	0.6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2. 가정 환경

1) 보호자와의 관계

신입생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가 보호자인 학생이 전체의 87.0%, 어머니가 보호자인 학생이 9.3%로 아버지가 보호자인 학생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남녀별로는 여학생이 아버지가 보호자인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남 86.0%, 여 88.0%), 단과대학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 분포는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 표 III-18 >

보호자와의 관계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	251	83.0	100	85.0	246	90.0	108	89.0	180	87.0	144	87.0	207	89.0	290	88.0	1526	87.0	778	86.0	748	88.0
모	32	11.0	11	9.4	20	7.3	11	9.0	18	8.7	19	11.0	19	8.2	33	10.0	163	9.3	88	9.8	75	8.8
할아버지	1	0.3	1	0.9	2	0.7	1	0.8	1	0.5	-	-	-	-	1	0.3	7	0.4	5	0.6	2	0.2
조 부	1	0.3	-	-	-	-	-	-	-	-	-	-	1	0.4	-	-	2	0.1	1	0.1	1	0.1
조 모	-	-	-	-	-	-	-	-	-	-	-	-	-	-	-	-	-	-	-	-	-	-
친 척	2	0.7	-	-	-	-	-	-	-	-	-	1	0.4	-	-	3	0.2	2	0.2	1	0.1	-
본 인	1	0.3	1	0.9	-	-	-	-	-	-	-	-	-	-	1	0.3	3	0.2	2	0.2	1	0.1
기 타	1	0.3	2	1.7	-	-	1	0.8	1	0.5	-	-	-	-	-	5	0.3	5	0.6	-	-	
무 응 답	12	4.0	2	1.7	5	1.8	1	0.8	7	3.4	3	1.8	5	2.1	4	1.2	39	2.2	19	2.1	20	2.4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2) 보호자의 연령

보호자의 연령은 50대, 40대, 60대 순으로 49.0%, 44.0%, 4.9%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50대의 보호자가 가장 많은 반면에, 농과대와 해양대는 40대의 보호자가 53.0%(50대 42.0%), 50.0%(50대 4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50대는 비슷하지만, 40대는 2.4%가 증가했으며, 60대의 보호자는 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자의 연령이 작년 보다 젊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III-19 >

보호자의 연령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10대	-	-	-	-	1	0.4	-	-	-	-	-	-	-	-	1	0.3	2	0.1	1	0.1	1	0.1
20대	2	0.7	3	2.6	2	0.7	-	-	1	0.5	-	-	1	0.4	-	-	9	0.5	3	0.3	6	0.7
30대	4	1.3	1	0.9	1	0.4	2	1.6	1	0.5	-	-	1	0.4	1	0.3	11	0.6	7	0.8	4	0.5
40대	129	43.0	48	41.0	104	38.0	53	43.0	109	53.0	83	50.0	108	46.0	138	42.0	772	44.0	387	43.0	385	45.0
50대	146	49.0	55	47.0	146	53.0	64	52.0	87	42.0	75	45.0	113	48.0	169	51.0	855	49.0	447	50.0	408	48.0
60대	17	5.6	9	7.7	18	6.6	2	1.6	9	4.3	7	4.2	9	3.9	15	4.6	86	4.9	48	5.3	38	4.5
70대 이상	-	-	1	0.9	-	-	1	0.8	-	-	-	-	1	0.4	4	1.2	7	0.4	4	0.4	3	0.4
무 응 답	3	1.0	-	-	1	0.4	-	-	-	-	1	0.6	-	-	1	0.3	6	0.3	3	0.3	3	0.4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3)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학력을 알아본 결과, 고졸(45.0%), 중졸(21.0%), 대졸(15.0%), 국졸(14.0%)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도에 비해 보호자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인 경우, 고졸(40.9%), 중졸(23.0%), 국졸(17.7%), 대졸(14.2%)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졸 이상(대학원졸 포함)의 보호자 학력을 살펴보면, 농과대(29.8%), 사범대(22.5%), 자연대(20.9%) 순이며, 중졸 이하(무학, 한문 수학, 국졸 포함)인 경우는 법정대(18.6%), 경상대(16.8%), 인문대(16.3%)로 나타났다.

<표 III-20>

보호자의 학력

대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무학	1	0.3	2	1.7	1	0.4	1	0.8	1	0.5	2	1.2	4	1.7	3	0.9	15	0.9	10	1.1	5	0.6
한문수학	3	1.0	1	0.9	1	0.4	1	0.8	-	-	-	-	1	0.4	2	0.6	9	0.5	5	0.6	4	0.5
국졸	46	15.0	19	16.0	44	16.0	12	9.8	30	14.0	24	14.0	24	10.0	46	14.0	245	14.0	126	14.0	119	14.0
중졸	64	21.0	26	22.0	63	23.0	21	17.0	37	18.0	45	27.0	51	22.0	59	18.0	366	21.0	207	23.0	159	19.0
고졸	133	44.0	45	38.0	128	47.0	60	49.0	77	37.0	68	41.0	103	44.0	167	51.0	781	45.0	369	41.0	412	49.0
대졸	40	13.0	20	17.0	32	12.0	24	20.0	49	24.0	24	14.0	39	17.0	37	11.0	265	15.0	146	16.0	119	14.0
대학원졸	10	3.3	2	1.7	2	0.7	3	2.5	12	5.8	3	1.8	9	3.9	12	3.6	53	3.0	30	3.3	23	2.7
무응답	4	1.3	2	1.7	2	0.7	-	-	1	0.5	-	-	2	0.9	3	0.9	14	0.8	7	0.8	7	0.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4)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신 신입생이 전체의 91.0%로 나타났다. 전체 신입생의 8.6%는 부모중 한 분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모인 경우(7.8%)가 편부인 경우(1.0%) 보다 많았다. 남녀와 단과대학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결손 가정이 작년 11.8%에 비해 금년 9.1%로 2.7%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1>

부모의 생존여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모생존	269	89.0	103	88.0	254	93.0	107	88.0	190	92.0	149	90.0	216	93.0	301	91.0	1589	91.0	811	90.0	778	92.0
부생존모사망	5	1.7	2	1.7	2	0.7	2	1.6	2	1.0	1	0.6	-	-	3	0.9	17	1.0	8	0.9	9	1.1
모생존부사망	25	8.3	10	8.5	17	6.2	12	9.8	15	7.2	15	9.0	17	7.3	25	7.6	136	7.8	77	8.6	59	7.0
부,모사망	2	0.7	2	1.7	-	-	1	0.8	-	-	1	0.6	-	-	-	-	6	0.3	4	0.4	2	0.2
무 응 답	-	-	-	-	-	-	-	-	-	-	-	-	-	-	-	-	-	-	-	-	-	-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5) 가 족 수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수를 알아본 결과, 총 가족수가 5명인 신입생이 전체의 32.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명(26.0%), 4명(16.0%)의 순이었다. 이 분포는 작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녀별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가 5인과 4인 가족(35.0%, 21.0%)이 여학생(29.0%, 11.0%) 보다 높았으며, 6인 가족은 여학생(29.0%)이 남학생(23.0%) 보다 많았다.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 법정대, 농과대, 공과대 신입생이 가족수가 5명인 비율이 작년 보다 높아져서 전체 신입생 통계에서 올해 5인 가족의 비율이 높아진데 기여했음이 밝혀졌다.

<표 III-22>

가 족 수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1명	1	0.3	-	-	-	-	-	-	-	-	-	-	-	-	-	-	1	0.1	-	-	1	0.1
2명	-	-	2	1.7	-	-	-	-	2	1.0	1	0.6	4	1.7	-	-	9	0.5	6	0.7	3	0.4
3명	8	2.7	3	2.6	7	2.6	-	-	7	3.4	6	3.6	3	1.3	4	1.2	38	2.2	29	3.2	9	1.1
4명	48	16.0	19	16.0	35	13.0	16	13.0	42	20.0	29	17.0	44	19.0	52	16.0	285	16.0	189	21.0	96	11.0
5명	87	29.0	35	30.0	75	27.0	37	30.0	77	37.0	55	33.0	73	31.0	121	37.0	560	32.0	315	35.0	245	29.0
6명	81	27.0	28	24.0	76	28.0	38	31.0	39	19.0	42	25.0	63	27.0	84	26.0	451	26.0	205	23.0	246	29.0
7명	44	15.0	14	12.0	41	15.0	21	17.0	24	12.0	20	12.0	27	12.0	36	11.0	227	13.0	94	10.0	133	16.0
8명 이상	31	10.0	16	14.0	39	14.0	10	8.2	16	7.7	13	7.8	18	7.7	30	9.1	173	9.9	60	6.7	113	13.0
무 응 답	1	0.3	-	-	-	-	-	-	-	-	-	-	1	0.4	2	0.6	4	0.2	2	0.2	2	0.2
합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6) 가족의 거주지

가족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제주시 51.0%, 서귀포시 14.0%, 애월읍 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의 가족인 경우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다음으로 대정읍과 남원읍이 4.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생의 성장지 <표 III-5> 분포와 거의 비슷한데 조금의 차이는 학업을 위해 일찍 가족의 품을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I-23>

가족의 거주지

대학 가족 거주지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178	59.0	64	55.0	146	53.0	70	57.0	80	39.0	72	43.0	119	51.0	169	51.0	898	51.0	457	51.0	441	52.0
서귀포시	42	14.0	12	10.0	27	9.9	20	16.0	25	12.0	27	16.0	34	15.0	62	19.0	249	14.0	103	11.0	146	17.0
애 월 읍	6	2.0	9	7.7	9	3.3	2	1.6	9	4.3	5	3.0	14	6.0	21	6.4	75	4.3	52	5.8	23	2.7
한 립 읍	7	2.3	4	3.4	11	4.0	4	3.3	8	3.9	3	1.8	7	3.0	15	4.6	59	3.4	36	4.0	23	2.7
한 경 면	5	1.7	2	1.7	5	1.8	2	1.6	3	1.4	4	2.4	2	0.9	6	1.8	29	1.7	19	2.1	10	1.2
대 정 읍	6	2.0	3	2.6	14	5.1	6	4.9	9	4.3	12	7.2	11	4.7	7	2.1	68	3.9	32	3.6	36	4.2
안 덕 면	8	2.7	3	2.6	8	2.9	-	-	1	0.5	2	1.2	3	1.3	2	0.6	27	1.5	13	1.4	14	1.7
남 원 읍	6	2.0	5	4.3	13	4.8	3	2.5	10	4.8	7	4.2	11	4.7	8	2.4	63	3.6	27	3.0	36	4.2
표 선 면	7	2.3	4	3.4	5	1.8	-	-	-	-	6	3.6	1	0.4	3	0.9	26	1.5	13	1.4	13	1.5
성 산 읍	6	2.0	1	0.9	13	4.8	6	4.9	4	1.9	9	5.4	4	1.7	8	2.4	51	2.9	21	2.3	30	3.5
구 좌 읍	9	0.3	2	1.7	9	3.3	5	4.1	6	2.9	5	3.0	2	0.9	5	1.5	43	2.5	20	2.2	23	2.7
조 천 읍	12	4.0	2	1.7	5	1.8	2	1.6	5	2.4	7	4.2	3	1.3	11	3.3	47	2.7	26	2.9	21	2.5
우 도 면	-	-	1	0.9	2	0.7	-	-	1	0.5	-	-	1	0.4	-	-	5	0.3	2	0.2	3	0.4
추 자 면	-	-	-	-	-	-	-	-	1	0.5	1	0.6	1	0.4	-	-	3	0.2	3	0.3	-	-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서울	2	0.7	2	1.7	1	0.4	-	-	10	4.8	2	1.2	7	3.0	1	0.3	25	14	20	22	5	0.6
부산	-	-	-	-	1	0.4	-	-	8	3.9	2	1.2	-	-	2	0.6	13	0.7	8	0.9	5	0.6
대구	1	0.3	1	0.9	-	-	-	-	1	0.5	1	0.6	1	0.4	1	0.3	6	0.3	4	0.4	2	0.2
대전	-	-	-	-	-	-	-	-	-	-	-	2	0.9	1	0.3	3	0.2	3	0.3	-	-	-
인천	-	-	-	-	-	-	-	-	3	1.4	-	-	-	-	-	-	3	0.2	3	0.3	-	-
광주	-	-	-	-	2	0.7	-	-	-	-	-	-	1	0.4	-	-	3	0.2	3	0.3	-	-
경기	1	0.3	-	-	-	-	-	-	6	2.9	-	-	2	0.9	-	-	9	0.5	7	0.8	2	0.2
강원	-	-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1	0.8	5	2.4	-	-	-	-	1	0.3	7	0.4	5	0.6	2	0.2
경남	-	-	-	-	-	-	-	-	6	2.9	1	0.6	1	0.4	1	0.3	9	0.5	8	0.9	1	0.1
충북	1	0.3	-	-	-	-	-	-	-	-	-	-	-	-	-	-	1	0.1	1	0.1	-	-
충남	1	0.3	-	-	-	-	-	-	-	-	-	-	-	-	-	-	1	0.1	1	0.1	-	-
전북	-	-	-	-	-	-	-	-	2	1.0	-	-	-	-	-	-	2	0.1	2	0.2	-	-
전남	1	0.3	-	-	-	-	-	-	3	1.4	-	-	-	-	1	0.3	5	0.3	2	0.2	3	0.4
해외	-	-	-	-	1	0.4	-	-	-	-	-	-	1	0.4	-	-	2	0.1	2	0.2	-	-
무응답	2	0.7	2	1.7	1	0.4	1	0.8	1	0.5	-	-	5	2.1	4	1.2	16	0.9	7	0.8	9	1.1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 표 III-25 >

보호자의 직업 및 직종

대학 직업및직종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농 업	101	34.0	40	34.0	116	42.0	42	34.0	64	31.0	68	41.0	71	30.0	112	34.0	614	35.0	307	34.0	307	34.0
수 산 업	2	0.7	2	1.7	1	0.4	2	1.6	6	2.9	11	6.6	5	2.1	5	1.5	34	1.9	22	2.4	12	1.4
공 업	2	0.7	-	-	3	1.1	2	1.6	1	0.5	1	0.6	1	0.4	4	1.2	14	0.8	8	0.9	6	0.7
건 설 업	13	4.3	3	2.6	12	4.4	3	2.5	6	2.9	9	5.4	12	5.2	19	5.8	77	4.4	42	4.7	35	4.1
서어비스업	22	7.3	12	10.0	21	7.7	11	9.0	15	7.2	6	3.6	20	8.6	33	10.0	140	8.0	84	9.3	56	6.6
회 사 원	25	8.3	11	9.4	24	8.8	16	13.0	22	11.0	11	6.6	22	9.4	22	6.7	153	8.8	79	8.8	74	8.7
공 무 원	29	9.6	18	15.0	24	8.8	12	9.8	24	12.0	21	13.0	25	11.0	43	13.0	196	11.0	107	12.0	89	10.0
교 육 자	15	5.0	1	0.9	6	2.2	8	6.6	12	5.8	7	4.2	14	6.0	12	3.6	75	4.3	36	4.0	39	4.6
정 치 가	-	-	-	-	-	-	-	-	-	-	-	-	-	-	-	-	-	-	-	-	-	-
법 률 가	-	-	-	-	1	0.4	-	-	-	-	-	-	-	-	2	0.6	3	0.2	1	0.1	2	0.2
언 론 인	1	0.3	-	-	1	0.4	-	-	1	0.5	-	-	-	-	1	0.3	4	0.2	2	0.2	2	0.2
종 교 인	2	0.7	-	-	1	0.4	1	0.8	2	1.0	1	0.6	1	0.4	-	-	8	0.5	7	0.8	1	0.1
군 인	1	0.3	-	-	-	-	1	0.8	-	-	-	-	1	0.4	1	0.3	4	0.2	1	0.1	3	0.4
상 업	61	20.0	18	15.0	46	17.0	16	13.0	35	17.0	23	14.0	46	20.0	57	17.0	302	17.0	134	15.0	168	20.0
의 사	-	-	-	-	-	-	-	-	3	1.4	-	-	-	-	-	-	3	0.2	2	0.2	1	0.1
연 구 원	-	-	-	-	-	-	-	-	-	-	-	-	-	-	1	0.3	1	0.1	1	0.1	-	-
문 학 · 예 술 인	1	0.3	-	-	-	-	-	-	1	0.5	-	-	-	-	-	-	2	0.1	1	0.1	1	0.1
무 직	8	2.7	6	5.1	4	1.5	-	-	4	1.9	1	0.6	3	1.3	3	0.9	29	1.7	19	2.1	10	1.2
기 타	15	5.0	3	2.6	10	3.7	5	4.1	10	4.8	7	4.2	10	4.3	12	3.6	72	4.1	37	4.1	35	4.1
무 응 답	3	1.0	3	2.6	3	1.1	3	2.5	1	0.5	-	-	2	0.9	2	0.6	17	1.0	10	1.1	7	0.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3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9) 가정의 월 수입

가정의 월 수입을 보면, 110만원 이상(22.0%)이 가장 많고, 다음이 100~109만원(14.0%), 70~79만원(8.8%)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1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비율이 8.5% 증가(27.5%→36.0%)한 반면에, 69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비율은 19.6% 감소(37.9%→18.3%)하였다. 남녀별로 보면, 월 수입 69만원 이하인 비율이 남학생은 20.3%, 여학생은 16.1%로 여학생의 가족 월 수입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가족 월 수입을 잘 모르거나, 고의로 답하지 않아 무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은 관계(20.0%)로, 위 분포의 신뢰성은 다소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표 III-26>

가정의 월 수입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50 만 원 이하	21	7.0	10	8.5	18	6.6	8	6.6	11	5.3	15	9.0	14	6.0	17	5.2	114	6.5	65	7.2	49	5.8
50 ~ 59 만 원	10	3.3	8	6.8	9	3.3	4	3.3	10	4.8	10	6.0	9	3.9	20	6.1	80	4.6	42	4.7	38	4.5
60 ~ 69 만 원	16	5.3	7	6.0	19	7.0	8	6.6	13	6.3	20	12.0	17	7.3	25	7.6	125	7.2	76	8.4	49	5.8
70 ~ 79 만 원	26	8.6	9	7.7	20	7.3	9	7.4	27	13.0	11	6.6	16	6.9	35	11.0	153	8.8	91	10.0	62	7.3
80 ~ 89 만 원	25	8.3	16	14.0	24	8.8	15	12.0	13	6.3	7	4.2	21	9.0	24	7.3	145	8.3	86	9.6	59	7.0
90 ~ 99 만 원	18	6.0	8	6.8	28	10.0	15	12.0	10	4.8	16	9.6	26	11.0	24	7.3	145	8.3	84	9.3	61	7.2
100 ~ 109 만 원	49	16.0	19	16.0	33	12.0	9	7.4	34	16.0	19	11.0	36	15.0	51	16.0	250	14.0	127	14.0	123	15.0
110 만 원 이상	77	26.0	17	15.0	61	22.0	25	20.0	61	29.0	29	17.0	48	21.0	64	19.0	382	22.0	188	21.0	194	23.0
무 응 답	59	20.0	23	20.0	61	22.0	29	24.0	28	14.0	39	23.0	46	20.0	69	21.0	354	20.0	141	16.0	213	25.0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0) 가정의 경제 수준

가정의 경제 수준은 가정의 월 수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하 44.0%, 중상 43.0%로 나타났는데, 작년에 비해 중하~하의 비율이 8.5%(59.6%→51.1%) 감소한 반면, 상~중상의 비율이 3.1%(40.4%→43.5%)가 증가하여 금년 신입생 가정의 경제 수준은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하인 학생이 44.0%, 하상이 4.5%, 하가 2.6%로 전체 신입생의 과반수가 넘는 51.1% 정도의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III-27> 가정의 경제 수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상	1	0.3	-	-	2	0.7	-	-	1	0.5	1	0.6	-	-	4	1.2	9	0.5	6	0.7	3	0.4
중 상	140	47.0	43	37.0	103	38.0	53	43.0	111	54.0	66	40.0	105	45.0	136	41.0	757	43.0	374	42.0	383	45.0
중 하	120	40.0	60	51.0	122	45.0	51	42.0	78	38.0	76	46.0	104	45.0	155	47.0	766	44.0	413	46.0	353	42.0
하 상	13	4.3	4	3.4	20	7.3	5	4.1	9	4.3	5	3.0	10	4.3	12	3.6	78	4.5	47	5.2	31	3.7
하	6	2.0	2	1.7	13	4.8	3	2.5	3	1.4	6	3.6	3	1.3	9	2.7	45	2.6	30	3.3	15	1.8
무 응 답	21	7.0	8	6.8	13	4.8	10	8.2	5	2.4	12	7.2	11	4.7	13	4.0	93	5.3	30	3.3	63	7.4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1) 부모의 종교

신입생 부모의 22.0%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모인 경우, 불교가 59.0%, 천주교 7.8%, 기독교 7.4%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녀별로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와 불교, 천주교, 기독교인 경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교가 60.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과 대학으로는 법정대(65.0%), 자연대(63.0%), 공과대(6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부모의 종교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불 교	170	56.0	76	65.0	154	56.0	72	59.0	118	57.0	95	57.0	146	63.0	199	60.0	100	59.0	525	58.0	505	60.0
천 주 교	30	10.0	9	7.7	23	8.4	8	6.6	14	6.8	9	5.4	21	9.0	23	7.0	137	7.8	72	8.0	65	7.7
기 득 교	32	11.0	7	6.0	19	7.0	12	9.8	20	9.7	8	4.8	13	5.6	18	5.5	129	7.4	69	7.7	60	7.1
유 교	1	0.3	1	0.9	5	1.8	1	0.8	1	0.5	-	-	1	0.4	1	0.3	11	0.6	7	0.8	4	0.5
천 도 교	-	-	-	-	1	0.4	-	-	-	-	-	-	1	0.4	2	0.6	4	0.2	3	0.3	1	0.1
원 불 교	2	0.7	1	0.9	2	0.7	-	-	1	0.5	1	0.6	-	-	1	0.3	8	0.5	5	0.6	3	0.4
기 타	1	0.3	2	1.7	7	2.6	1	0.8	1	0.5	6	3.6	3	1.3	4	1.2	25	1.4	11	1.2	14	1.7
없 음	63	21.0	21	18.0	60	22.0	28	23.0	46	22.0	44	27.0	45	19.0	79	24.0	386	22.0	197	22.0	189	22.0
무 응 답	2	0.7	-	-	2	0.7	-	-	6	2.9	3	1.8	3	1.3	2	0.6	18	1.0	11	1.2	7	0.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2) 학생의 가정 분위기

자신의 가족관계, 즉 가정 분위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저 그렇다 23.0%, 언제나 화목하다는 비율이 8.8% 순으로 전체적으로 화목하다는 비율이 73.8% 였다. 남녀와 단과대학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단지 경상대인 경우, 화목치 못하다는 비율이 5.1%로 다른 단과대학 보다 높아서 가정분위기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학생의 가정 분위기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언 제 나 화목하다	30	10.0	14	12.0	24	8.8	7	5.7	17	8.2	13	7.8	21	9.0	28	8.5	154	8.8	78	8.7	76	9.0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	191	63.0	74	63.0	166	61.0	87	71.0	143	69.0	99	60.0	149	64.0	230	70.0	1,139	65.0	570	63.0	569	67.0
그저 그렇다	69	23.0	24	21.0	65	24.0	26	21.0	45	22.0	49	30.0	58	25.0	63	19.0	399	23.0	219	24.0	180	21.0
화목치 못한 편이다	7	2.3	1	0.9	11	4.0	2	1.6	1	0.5	2	1.2	5	2.1	4	1.2	33	1.9	17	1.9	16	1.9
전혀 화목치 않다	4	1.3	3	2.6	3	1.1	-	-	1	0.5	1	0.6	-	-	2	0.6	14	0.8	12	1.3	2	0.2
무 응 답	-	-	1	0.9	4	1.5	-	-	-	-	2	1.2	-	-	2	0.6	9	0.5	4	0.4	5	0.6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3)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가 자신에 대한 양육 태도를 알아본 결과, 다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응답이 65.0%로 가장 높았으며, 지나치게 보호·간섭하고 있다는 15.0%, 엄격히 통제하고 지시한다에 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와 단과대학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생의 행동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4.4%, 애정이 없고 무관심하다는 2.7%의 응답을 하였다.

<표 III-30> 부모의 양육 태도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다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198	66.0	83	71.0	179	66.0	91	75.0	129	62.0	100	60.0	139	60.0	209	64.0	1128	65.0	566	63.0	562	66.0
지나치게 보호·간섭하고 있다	46	15.0	17	15.0	31	11.0	10	8.2	48	23.0	24	14.0	40	17.0	44	13.0	260	15.0	155	17.0	105	12.0
애정이 없고 무관심하다	5	1.7	3	2.6	8	2.9	2	1.6	4	1.9	8	4.8	4	1.7	14	4.3	48	2.7	30	3.3	18	2.1
엄격히 통제하고 지시한다	28	9.3	9	7.7	30	11.0	15	12.0	22	11.0	19	11.0	25	11.0	30	9.1	178	10.0	88	9.8	90	11.0
행동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	15	5.0	3	2.6	16	5.9	1	0.8	2	1.0	6	3.6	15	6.4	19	5.8	77	4.4	36	4.0	41	4.8
무응답	9	3.0	2	1.7	9	3.3	3	2.5	2	1.0	9	5.4	10	4.3	13	4.0	57	3.3	25	2.8	32	3.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4) 가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학생 가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모와의 견해 차이가 38.0%로, 경제문제 23.0%, 기타 20.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정내의 질병(4.6%)과 부모의 불화(3.4%)도 8.0%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별로는 부모와의 견해 차이와 부모의 불화가 남학생인 경우, 각각 42.0%와 3.8%, 그리고 여학생인 경우가 33.0%와 2.9%로 남학생이 높게 응답하였고, 경제문제와 가족의 질병이 여학생이 26.0%와 5.3%로 각각 20.0%와 3.9%의 반응을 보여 남학생 보다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1> 가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 문제	66	22.0	25	21.0	67	25.0	39	32.0	33	16.0	31	19.0	52	22.0	81	25.0	394	23.0	176	20.0	218	26.0
부모와의 견해 차이	110	37.0	37	32.0	96	35.0	36	30.0	94	45.0	67	40.0	101	43.0	122	37.0	663	38.0	379	42.0	284	33.0
부모의 불화	13	4.3	2	1.7	9	3.3	3	2.5	6	2.9	5	3.0	11	4.7	10	3.0	59	3.4	34	3.8	25	2.9
가정내의 질병	11	3.7	6	5.1	14	5.1	5	4.1	7	3.4	8	4.8	10	4.3	19	5.8	80	4.6	35	3.9	45	5.3
기 타	54	18.0	34	29.0	63	23.0	22	18.0	43	21.0	34	20.0	34	15.0	57	17.0	341	20.0	194	22.0	147	17.0
무 응 답	47	16.0	13	11.0	24	8.8	17	14.0	24	12.0	21	13.0	25	11.0	40	12.0	211	12.0	82	9.1	129	15.0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5) 부모와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해의 차이 정도

신입생의 부모와 학생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해는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비교적 차이가 있다 58.0%, 그저 그렇다 19.0%, 매우 차이가 있다 14.0%의 순으로 나타나 72.0%로 작년의 80.7% 보다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2> 부모와 자신이 사물을 보는 견해의 차이 정도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차이가 있다	47	16.0	18	15.0	38	14.0	15	12.0	27	13.0	29	17.0	34	15.0	40	12.0	248	14.0	135	15.0	113	13.0
비교적 차이가 있다	165	55.0	60	51.0	162	59.0	57	47.0	116	56.0	96	58.0	122	52.0	191	58.0	969	55.0	510	57.0	459	54.0
그저 그렇다	46	15.0	22	19.0	45	16.0	33	27.0	41	20.0	28	17.0	53	23.0	64	19.0	332	19.0	165	18.0	167	20.0
차이가 없는 편이다	40	13.0	15	13.0	26	9.5	15	12.0	21	10.0	12	7.2	23	9.9	33	10.0	185	11.0	82	9.1	103	12.0
전혀 차이가 없다	-	-	1	0.9	1	0.4	-	-	2	1.0	-	-	-	-	-	-	4	0.2	3	0.3	1	0.1
무 응 답	3	1.0	1	0.9	1	0.4	2	1.6	-	-	1	0.6	1	0.4	1	0.3	10	0.6	5	0.6	5	0.6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6) 가족중 개인적 문제의 의논 상대

학생 가족중에서 자신이 느끼는 개인적이 문제들을 주로 누구와 의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순위 형제인 형, 누나, 오빠, 언니라고 31.0%가 대답했고, 그 다음이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그리고 의논하지 않음에 응답한 학생이 각 22.0%이며, 아버지와 기타가 8.7%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녀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각각 10.0%, 13.0% 높게 형, 누나, 오빠, 언니(36.0%), 그리고 어머니(29.0%)와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의논 하지 않거나(30.0%), 또는 아버지(13.0%)와 의논하는 경우가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분포 비율은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의논 대상의 순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I-33> 가족중 개인적 문제의 의논 대상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	22	7.3	9	7.7	19	7.0	6	4.9	23	11.0	14	8.4	22	9.4	37	11.0	152	8.7	113	13.0	39	4.6
모	76	25.0	30	26.0	57	21.0	36	30.0	47	23.0	26	16.0	55	24.0	58	18.0	385	22.0	141	16.0	244	29.0
형, 누나, 오빠, 언니	110	37.0	31	26.0	98	36.0	37	30.0	49	24.0	53	32.0	65	28.0	98	30.0	541	31.0	237	26.0	304	36.0
동 생	9	3.0	9	7.7	11	4.0	6	4.9	8	3.9	2	1.2	10	4.3	5	1.5	60	3.4	13	1.4	47	5.5
의논 않음	46	15.0	24	21.0	55	20.0	20	16.0	44	21.0	47	28.0	49	21.0	96	29.0	381	22.0	268	30.0	113	13.0
기 타	26	8.6	8	6.8	24	8.8	10	8.2	26	13.0	16	9.6	21	9.0	21	6.4	152	8.7	100	11.0	52	6.1
무 응 답	12	4.0	6	5.1	9	3.3	7	5.7	10	4.8	8	4.8	11	4.7	14	4.3	77	4.4	28	3.1	49	5.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3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3. 대학 및 학과 선택의 기준

1) 대학 진학의 목적에 대한 지각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오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

해서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폭 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20.0%), 학문적 지식을 위해서(17.0%), 교양 및 인격 수양을 위해서(13.0%)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와 무응답자(14.0%), 주위를 의식해서 (5.8%),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2.3%), 배우자 선택에 유리하므로에 0.7%가 나타남은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는 학문적 지식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된 목적이라고 답한 학생이 남학생(14.0%) 보다 여학생(21.0%)이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볼때,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들의 분포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는 공과대(33.0%), 경상대(30.0%), 해양대와 자연대(각 27.0%), 법정대(25.0%) 순이며, 폭 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라고 높게 답한 대학은 해양대(27.0%), 농과대(26.0%), 학문적 지식을 위해서 진학했다는 신입생들의 분포 비율이 높은 대학은 인문대(33.0%), 사범대(22.0%)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신입생인 경우는 보다 나은 직업(23.9%), 폭 넓은 인간관계(23.3%), 교양 및 인격 수양(16.4%), 학문적 지식의 습득(15.4%) 순으로 금년에 비해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III - 34 > 대학 진학의 목적에 대한 지각

대학 진학목적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58	19.0	29	25.0	82	30.0	24	20.0	51	25.0	44	27.0	62	27.0	108	33.0	458	26.0	255	28.0	203	24.0
교양 및 인격 수양을 위해서	50	17.0	24	21.0	32	12.0	27	22.0	30	14.0	14	8.4	26	11.0	29	8.8	232	13.0	102	11.0	130	15.0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5	1.7	3	2.6	5	1.8	1	0.8	7	3.4	7	4.2	3	1.3	9	2.7	40	2.3	27	3.0	13	1.5
배우자 선택에 유리하므로	1	0.3	1	0.9	2	0.7	1	0.8	-	-	2	1.2	4	1.7	1	0.3	12	0.7	8	0.9	4	0.5
주위를 의식해서	11	3.7	2	1.7	12	4.4	3	2.5	16	7.7	19	11.0	19	8.2	20	6.1	102	5.8	70	7.8	32	3.8
폭 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51	17.0	18	15.0	64	23.0	22	18.0	54	26.0	45	27.0	48	21.0	56	17.0	358	20.0	195	22.0	163	19.0
학문적 지식을 위해서	99	33.0	21	18.0	31	11.0	27	22.0	26	13.0	17	10.0	25	11.0	55	17.0	301	17.0	122	14.0	179	21.0
기 타	17	5.6	9	7.7	30	11.0	9	7.4	19	9.2	10	6.0	31	13.0	31	9.4	156	8.9	88	9.8	68	8.0
무 응 답	9	3.0	10	8.5	15	5.5	8	6.6	4	1.9	8	4.8	15	6.4	20	6.1	89	5.1	33	3.7	56	6.6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2)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

학생이 제주대학교를 지원한 가장 큰 동기에 대한 물음의 결과는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33.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와 기타가 19.0%, 경제적으로 타 대학에 진학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13.0%, 제주 지역에서 직업을 갖기 위하여 9.9%, 타 대학에 없는 특수 분야의 학문 연구를 위하여 2.8% 순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입학 가능성에 농과대(41.0%), 해양대와 자연대(39.0%)가, 지방에 소재한 유일한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한 동기라고 이유를 밝힌 법정대(23.0%)의 신입생들이 높은 반응을 보였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타 대학에 없는 특수 분야의 학문 연구, 입학 가능성, 제주 지역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에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반응한 지원 동기는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이기 때문과 경제적으로 타 대학에 진학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로 나타났다.

<표 III-35>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 대학이기 때문에	66	22.0	23	20.0	62	23.0	26	21.0	41	20.0	33	20.0	43	18.0	46	14.0	340	19.0	137	15.0	203	24.0
타 대학에 없는 특수 분야의 학문 연구를 위하여	3	1.0	-	-	6	2.2	-	-	17	8.2	11	6.6	3	1.3	9	2.7	49	2.8	41	4.6	8	0.9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여	84	28.0	37	32.0	67	25.0	29	24.0	85	41.0	65	39.0	90	39.0	120	36.0	577	33.0	349	39.0	228	27.0
제주 지역에서 직업을 갖기 위하여	18	6.0	14	12.0	37	14.0	11	9.0	18	8.7	12	7.2	26	11.0	37	11.0	173	9.9	120	13.0	53	6.3
경제적으로 타 대학에 진학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50	17.0	17	15.0	45	16.0	26	21.0	11	5.3	17	10.0	27	12.0	39	12.0	232	13.0	71	7.9	161	19.0
기 타	72	24.0	20	17.0	51	19.0	28	23.0	33	16.0	23	14.0	37	16.0	69	21.0	333	19.0	169	19.0	164	19.0
무 응 답	8	2.7	6	5.1	5	1.8	2	1.6	2	1.0	5	3.0	7	3.0	9	2.7	44	2.5	13	1.4	31	3.7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3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3)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금지심

신입생들에게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그저 그렇다(71.0%), 자랑스럽다(25.0%) 순으로 나타난 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도 1.6%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남녀별로는 그저 그렇다란 대답에 남학생이 71.0%, 여학생이 75.0%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랑스럽다에 남학생 26.0%, 여학생 23.0%가, 부끄럽다에 남학생이 2.1%, 여학생이 1.1%로 각각 3.0%와 1.0% 더 남학생이 높은 반응을 보였다. 단과대학별로는 농과대(34.0%), 경상대(32.0%) 순으로 자랑스럽다에, 그리고 부끄럽다에 자연대가 3.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비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생의 비율(30.4%→25.0%)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금지심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자랑스럽다	69	23.0	27	23.0	86	32.0	28	23.0	70	34.0	40	24.0	46	20.0	67	20.0	433	25.0	238	26.0	195	23.0
그저 그렇다	226	75.0	88	75.0	182	67.0	89	73.0	134	65.0	123	74.0	180	77.0	251	76.0	1273	73.0	637	71.0	636	75.0
부끄럽다	4	1.3	1	0.9	5	1.8	2	1.6	1	0.5	3	1.8	7	3.0	5	1.5	28	1.6	19	2.1	9	1.1
무응답	2	0.7	1	0.9	-	-	3	2.5	2	1.0	-	-	-	-	6	1.8	14	0.8	6	0.7	8	0.9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4) 학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

학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은 직업적 전망(27.0%), 자신의 적성(25.0%), 입학 가능성(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작년 신입생들은 자신의 적성(27.9%), 직업적 전망(24.5%), 입학 가능성(23.8%)의 순에 비하여 직업적 전망에 금년 신입생들은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곧 앞의 대학에 진학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의 질문에 보다는 나온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결과와 연관되며, 사회의 심각한 취업난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직업적 전망을 특히 중시한 대학은 경상대(42.0%) 학생들이고, 자신의 적성을 중시한 대학은 인문대(40.0%) 학생들임을 알 수 있었다. 농과대(40.0%), 해양대(39.0%), 자

연대(31.0%)는 학과 선택시 입학 가능성을 특히 중요시 여긴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들은 남학생 보다 직업적 전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 선택을 하였다고 높게 응답한 반면, 입학 가능성 때문에 학과 선택을 중요시 여긴 학생은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37> 학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

대학 선택요인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직업적 전망	48	16.0	45	38.0	116	42.0	24	20.0	46	22.0	44	27.0	47	20.0	105	32.0	475	27.0	239	27.0	236	28.0
적성	120	40.0	21	18.0	51	19.0	37	30.0	19	9.2	27	16.0	60	26.0	96	29.0	431	25.0	206	23.0	225	27.0
입학 가능성	51	17.0	18	15.0	51	19.0	23	19.0	83	40.0	65	39.0	73	31.0	56	17.0	420	24.0	243	27.0	177	21.0
이상 실현	40	13.0	15	13.0	17	6.2	13	11.0	14	6.8	5	3.0	11	4.7	23	7.0	138	7.9	65	7.2	73	8.6
기타	31	10.0	13	11.0	26	9.5	22	18.0	41	20.0	22	13.0	34	15.0	35	11.0	224	13.0	123	14.0	101	12.0
무응답	11	3.7	5	4.3	12	4.4	3	2.5	4	1.9	3	1.8	8	3.4	14	4.3	60	3.4	24	2.7	36	4.2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5) 지망 학과에 대한 지식의 정도

자신이 지망한 학과의 분야, 강의내용 또는 전망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신입생의 73.0%가 약간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19.0%가 전혀 몰랐었다라고 답했다. 자신의 지망 학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라는 신입생은 7.6%에 불과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지망한 학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한채 학과를 지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망 학과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답한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인문대로서 16.0%의 학생이 응답했다.

<표 III-38> 지망 학과에 대한 지식의 정도

대학 사전지식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잘 알고 있었다	47	16.0	10	8.5	10	3.7	6	4.9	20	9.7	4	2.4	15	6.4	20	6.1	132	7.6	77	8.6	55	6.5
약간 알고 있었다	217	72.0	93	79.0	213	78.0	107	88.0	125	60.0	105	63.0	178	76.0	234	71.0	1,272	73.0	622	69.0	650	77.0
전혀 몰랐었다	31	10.0	13	11.0	47	17.0	9	7.4	62	30.0	57	34.0	38	16.0	69	21.0	326	19.0	188	21.0	138	16.0
무응답	6	2.0	1	0.9	3	1.1	-	-	-	-	-	-	2	0.9	6	1.8	18	1.0	13	1.4	5	0.6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6) 학과를 선택한 시기

현재 지원한 학과를 선택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본 결과, 입학원서 접수 직전이라고 응답한 신입생이 가장 많았고(45.0%), 그 다음으로 고교 3학년 2학기(33.0%), 고교 1~3학년 1학기(17.0%), 그리고 중학교 또는 그 이전(4.2%)의 순이었다.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학과를 결정했다는 남녀 학생의 비율은 똑 같았고, 고교 3학년 2학기중에 학과를 결정했다는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았으며, 고교 1~3학년 1학기과 중학교 또는 그 이전에 학과를 결정했다는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았음을 알 수가 있었다. 단과대학별로 보면, 농과대와 해양대(각 59.0%)가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경상대(41.0%)와 공과대(38.0%)가 고교 3학년 2학기에, 인문대가 고교 1~3학년 1학기(31.0%)와 중학교 또는 그 이전(9.0%)에 학과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학과를 선택한 시기

대학 선택시기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입학원서 접수 직전	97	32.0	55	47.0	126	46.0	48	39.0	123	59.0	98	59.0	111	48.0	130	40.0	788	45.0	404	45.0	384	45.0
고교 3학년 2 학 기	76	25.0	36	31.0	99	36.0	50	41.0	51	25.0	56	34.0	82	35.0	125	38.0	575	33.0	317	35.0	258	30.0
고교 1~3학 년 1 학 기	94	31.0	16	14.0	43	16.0	14	11.0	23	11.0	11	6.6	34	15.0	57	17.0	292	17.0	139	15.0	153	18.0
중학교 또는 그 이 전	27	9.0	7	6.0	3	1.1	10	8.2	6	2.9	1	0.6	4	1.7	15	4.6	73	4.2	28	3.1	45	5.3
무 응 답	7	2.3	3	2.6	2	0.7	-	-	4	1.9	-	-	2	0.9	2	0.6	20	1.1	12	1.3	8	0.9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7)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신입생들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스러운지 알아본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라고 답한 학생(60.0%)이 불만이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라고 답한 학생(5.2%) 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런 경향은 남녀 신입생 모두에서 나타났다으나, 만족한다는 비율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서 더 높았다(남 59.0%, 여 60.0%). 작년인 경우, 이 결과는 남녀 학생 비율이 똑같이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보아 선택한 학과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또는 만족)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대학은

경상대(69.0%), 인문대(68.0%) 사범대(66.0%) 등의 순이며, 불만이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라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은 자연대(9.4%), 해양대(8.4%), 농과대(6.7%) 순으로 나타났는데, 앞에서 분석한 학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요인 <표 III-37>에서 보인 결과와 같이 입학 가능성에 높은 반응을 나타낸 대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0>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만족한다	77	26.0	15	13.0	51	19.0	22	18.0	34	16.0	7	4.2	22	9.4	71	22.0	299	17.0	138	15.0	161	19.0
다소 만족한다	127	42.0	53	45.0	136	50.0	59	48.0	68	33.0	70	42.0	94	40.0	140	43.0	747	43.0	398	44.0	349	41.0
보통이다	83	28.0	43	37.0	78	29.0	38	31.0	91	44.0	75	45.0	94	40.0	101	31.0	603	34.0	309	34.0	294	35.0
불만이다	10	3.3	3	2.6	7	2.6	3	2.5	11	5.3	7	4.2	15	6.4	11	3.3	67	3.8	36	4.0	31	3.7
매우 불만이다	2	0.7	1	0.9	1	0.4	-	-	3	1.4	7	4.2	7	3.0	4	1.2	25	1.4	15	1.7	10	1.2
무응답	2	0.7	2	1.7	-	-	-	-	-	-	-	-	1	0.4	2	0.6	7	0.4	4	0.4	3	0.4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4. 대학생활

1) 장래 대학생활에의 적응여부

학생이 앞으로 대학생활에의 적응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라고 85.6%의 학생이 답하였고,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13.7%로 적응할 것이다에 아주 높은 반응을 보였다. 남녀별로도 이러한 경향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라고 1.1%의 더 높은 남학생(남 86.0%, 여 84.9%)들의 답이었고, 반면에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도 여학생(14.5%)이 남학생(13.9%)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작년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단과대학별로 보아 대학생활에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라고 높게 대답한 대학은 농과대와 해양대(각 90.0%), 경상대(88.8%)이며,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자연대(20.9%), 법정대(17.6%), 인문대(1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III - 41 >

장래 대학생활에의 적응여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적응할것다	23	7.6	11	9.4	24	8.8	15	12.0	24	12.0	17	10.0	19	8.2	34	10.0	167	9.6	100	11.0	67	7.9
적응할것다	229	76.0	85	73.0	218	80.0	93	76.0	161	78.0	132	80.0	165	71.0	246	75.0	1329	76.0	674	75.0	655	77.0
적응하지않을것다	47	16.0	18	15.0	25	9.2	14	11.0	20	9.7	14	8.4	46	20.0	47	14.0	231	13.0	113	13.0	118	14.0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것 같다	1	0.3	3	2.6	3	1.1	-	-	-	-	2	1.2	2	0.9	1	0.3	12	0.7	8	0.9	4	0.5
무응답	1	0.3	-	-	3	1.1	-	-	2	1.0	1	0.6	1	0.4	1	0.3	9	0.5	5	0.6	4	0.5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2) 대학 재학중 예상되는 문제

신입생들의 여건으로 보아 대학 전 기간을 통해서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 본 결과, 학업 성취문제라고 응답한 학생이 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진학문제(25.0%),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문제(22.0%), 학비문제(7.7%), 병역문제(7.2%) 등의 순이었다.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학업 성취, 진학,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문제를,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학비, 건강, 이성문제에 더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입생들에게는 학습방법, 인간관계, 시간 및 생활 관리 등에 대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작년 신입생들은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문제(29.5%), 진학문제(25.9%), 학업 성취문제(19.9%)의 순으로 나타나, 금년 신입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 표 III - 42 >

대학 재학중 예상되는 문제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비 문제	23	7.6	6	5.1	25	9.2	6	4.9	22	11.0	14	8.4	16	6.9	22	6.7	134	7.7	71	7.9	63	7.4
건강 문제	6	2.0	3	2.6	7	2.6	2	1.6	6	2.9	2	1.2	1	0.4	5	1.5	32	1.8	18	2.0	14	1.7
병역 문제	10	3.3	6	5.1	22	8.1	5	4.1	21	10.0	21	13.0	14	6.0	27	8.2	126	7.2	124	14.0	2	0.2
학업 성취문제	80	27.0	36	31.0	64	23.0	29	24.0	43	21.0	30	18.0	68	29.0	106	32.0	456	26.0	217	24.0	239	28.0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 문제	77	26.0	23	20.0	59	22.0	32	26.0	43	21.0	32	19.0	56	24.0	67	20.0	389	22.0	154	17.0	235	28.0
장래 진학문제	72	24.0	28	24.0	69	25.0	37	30.0	55	27.0	52	31.0	64	27.0	65	20.0	442	25.0	224	25.0	218	26.0
이성 문제	5	1.7	1	0.9	3	1.1	-	-	6	2.9	5	3.0	1	0.4	7	2.1	28	1.6	26	2.9	2	0.2
기 타	15	5.0	7	6.0	11	4.0	3	2.5	5	2.4	3	1.8	4	1.7	14	4.3	62	3.5	34	3.8	28	3.3
무응답	13	4.3	7	6.0	13	4.8	8	6.6	6	2.9	7	4.2	9	3.9	16	4.9	79	4.5	32	3.6	47	5.5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3)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

신입생으로서 대학내의 어떠한 학사 운영제도와 행정 사항 등을 알고 싶어 하는지 알아본 결과는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이 41.0%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17.0%), 교내 학생 서어클(8.4%), 장학금 제도(7.0%), 해외 유학(6.2%), 아르바이트(5.0%), 병무 제도(3.7%), 대학시설 및 교수진(1.1%), 학칙(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학생활안내(신입생 오리엔테이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학교 운영자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 등 서로가 형식적이 아니고 보다 실질적인 내용의 안내와 학생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 등을 제고·개선하여 새로운 학교생활의 변화 속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신입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남녀별로는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 교육 내용, 장학금 제도, 해외 유학 등에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교내 학생 서어클 활동에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학으로는 공과대(46.0%), 경상대(44.0%), 해양대(43.0%) 순이며,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에 사범대(25.0%), 법정대(24.0%), 인문대(2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43>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	113	38.0	40	34.0	119	44.0	45	37.0	71	34.0	72	43.0	97	42.0	152	46.0	709	41.0	348	39.0	361	43.0
장학금 제도	20	6.6	10	8.5	15	5.5	5	4.1	12	5.8	19	11.0	19	8.2	23	7.0	123	7.0	61	6.8	62	7.3
해외 유학	32	11.0	3	2.6	13	4.8	6	4.9	11	5.3	8	4.8	12	5.2	23	7.0	108	6.2	48	5.3	60	7.1
군 입대	7	2.3	4	3.4	11	4.0	5	4.1	15	7.2	5	3.0	7	3.0	11	3.3	65	3.7	65	7.2	-	-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	65	22.0	28	24.0	47	17.0	30	25.0	28	14.0	22	13.0	31	13.0	43	13.0	294	17.0	135	15.0	159	19.0
교내학생서클	20	6.6	9	7.7	21	7.7	10	8.2	23	11.0	17	10.0	26	11.0	20	6.1	146	8.4	87	9.7	59	7.0
아르바이트	9	3.0	7	6.0	18	6.6	7	5.7	15	7.2	6	3.6	10	4.3	15	4.6	87	5.0	48	5.3	39	4.6
학 칙	2	0.7	2	1.7	1	0.4	-	-	2	1.0	1	0.6	-	-	2	0.6	10	0.6	5	0.6	5	0.6
대학시설 교수진	1	0.3	-	-	2	0.7	3	2.5	4	1.9	2	1.2	4	1.7	3	0.9	19	1.1	11	1.2	8	0.9
기 타	6	2.0	5	4.3	8	2.9	1	0.8	11	5.3	4	2.4	8	3.4	9	2.7	52	3.0	36	4.0	16	1.9
무 응 답	26	8.6	9	7.7	18	6.6	10	8.2	15	7.2	10	6.0	19	8.2	28	8.5	135	7.7	56	6.2	79	9.3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3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4) 대학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

신입생들이 대학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은 폭 넓은 사회경험(40.0%), 서어클활동(19.0%), 이성 교제(8.1%), 학업 보충(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에는 그 순서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폭 넓은 사회경험과 학습 보충에 더 중점을 두고, 서어클활동과 이성 교제는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 넓은 사회경험을 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는 법정대(44.0%), 사범대와 자연대(43.0%), 그리고 서어클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인 대학으로는 해양대(30.0%)와 농과대(25.0%) 였다.

<표 III-44> 대학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서적읽기	21	7.0	7	6.0	10	3.7	4	3.3	9	4.3	3	1.8	4	1.7	16	4.9	74	4.2	34	3.8	40	4.7
교양서적읽기	18	6.0	7	6.0	17	6.2	18	15.0	14	6.8	2	1.2	14	6.0	24	7.3	114	6.5	55	6.1	59	7.0
이성 교제	14	4.7	12	10.0	23	8.4	3	2.5	21	10.0	18	11.0	21	9.0	29	8.8	141	8.1	117	13.0	24	2.8
폭넓은사회경험	110	37.0	51	44.0	104	38.0	52	43.0	81	39.0	69	42.0	100	43.0	133	40.0	700	40.0	339	38.0	361	43.0
서어클활동	50	17.0	17	15.0	52	19.0	10	8.2	52	25.0	50	30.0	44	19.0	63	19.0	338	19.0	183	20.0	155	18.0
교수의의정추	8	2.7	1	0.9	8	2.9	7	5.7	5	2.4	2	1.2	12	5.2	6	1.8	49	2.8	18	2.0	31	3.7
어학 훈련	32	11.0	7	6.0	27	9.9	9	7.4	11	5.3	8	4.8	14	6.0	23	7.0	131	7.5	61	6.8	70	8.3
학업 보충	36	12.0	11	9.4	22	8.1	15	12.0	9	4.3	6	3.6	17	7.3	16	4.9	132	7.6	57	6.3	75	8.8
무 응 답	12	4.0	4	3.4	10	3.7	4	3.3	5	2.4	8	4.8	7	3.0	19	5.8	69	3.9	36	4.0	33	3.9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5)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

학생들이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은 제1, 2외국어 수시로 하겠다는 학생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로 제1외국어에만 주력하겠다는 36.0%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외국어의 특별한 훈련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도 3.8%가 있었다. 이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제 1, 2외국어 수시로 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로 제1외국어에만 주력하겠다는 외국어의 특별한 훈련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적게 나타났다. 단과대학 별로는 인문대와 법정대(각 75.0%), 경상대(74.0%)가 제1, 2외국어를 수시로 하겠다는 대답에, 그리고 공과대(54.0%), 농과대(47.0%), 해양대(42.0%)가 주로 제1외국어에만 주력하겠다는 높은 순으로 응답하였다.

< 표 III-45 >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

대학 공부계획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주로 제1외국어에만 주력하겠다	63	21.0	24	21.0	60	22.0	42	34.0	98	47.0	70	42.0	88	38.0	177	54.0	622	36.0	397	44.0	225	27.0
제2외국어를 수시로 하겠다	227	75.0	88	75.0	201	74.0	74	61.0	101	49.0	80	48.0	132	57.0	142	43.0	1045	60.0	441	49.0	604	71.0
외국어의 특별한 훈련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7	2.3	5	4.3	10	3.7	4	3.3	6	2.9	14	8.4	12	5.2	8	2.4	66	3.8	54	6.0	12	1.4
무응답	4	1.3	-	-	2	0.7	2	1.6	2	1.0	2	1.2	1	0.4	2	0.6	15	0.9	8	0.9	7	0.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6) 어학공부 방법

신입생들은 어학훈련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알아본 결과, 평소 충실한 강의 수강을 통해서(38.0%), 사설학원을 통해서(22.0%), 토플 서적 및 회화 카셋트를 이용해서(1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과 다소 비율에 차이가 있거나 순서가 뒤바뀌기는 하였지만, 앞에서 대답한 어학공부 방법은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서어클활동을 통하거나(6.4%), 학교 특강을 통해서(5.9%), 또 어학실습실을 활용해서(2.1%) 어학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도 1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이나 학생 자치기구에서는 이러한 서어클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하며, 학교 특강의 개설과 어학실습실 활용은 학교측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의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남녀간에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평소 충실한 강의 수강을 통해서와 토플 서적 및 회화 카셋트를 이용해서 공부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설학원을 통해서 낮은 나타났다.

< 표 III - 46 >

어학공부 방법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사설학원을통해서	58	19.0	20	17.0	53	19.0	22	18.0	64	31.0	42	25.0	52	22.0	67	20.0	378	22.0	175	19.0	203	24.0
새마을활동을통해서	12	4.0	6	5.1	17	6.2	4	3.3	12	5.8	7	4.2	20	8.6	33	10.0	111	6.4	55	6.1	56	6.6
평소충실강의수 강을 통해서	145	48.0	51	44.0	104	38.0	49	40.0	69	33.0	53	32.0	72	31.0	122	37.0	665	38.0	365	41.0	300	35.0
토를서먹및회화카 셋트를 이용해서	41	14.0	21	18.0	53	19.0	20	16.0	36	17.0	32	19.0	52	22.0	53	16.0	308	18.0	170	19.0	138	16.0
외언과 작곡인 접촉을 통해서	10	3.3	2	1.7	3	1.1	2	1.6	7	3.4	2	1.2	2	0.9	7	2.1	35	2.0	22	2.4	13	1.5
어학실습실 활 용 해 서	6	2.0	3	2.6	8	2.9	4	3.3	4	1.9	4	2.4	3	1.3	5	1.5	37	2.1	20	2.2	17	2.0
학교특강을통해서	9	3.0	8	6.8	18	6.6	10	8.2	7	3.4	12	7.2	19	8.2	20	6.1	103	5.9	49	5.4	54	6.4
무 응 답	20	6.6	6	5.1	17	6.2	11	9.0	8	3.9	14	8.4	13	5.6	22	6.7	111	6.4	44	4.9	67	7.9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5. 교수와의 관계

1) 교수와의 인간관계 여부

신입생들이 바라는 교수와의 인간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싶다(65.0%),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다(24.0%), 교수와 특별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5.2%)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즉 이는 신입생들이 교수에 대해서 학문적 지도 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인간관계와 학문적 지도를 더욱 더 원하고 있었다.

<표 III-47>

교수와의 인간관계 여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다	78	26.0	33	28.0	65	24.0	27	22.0	47	23.0	32	19.0	52	22.0	85	26.0	419	24.0	211	23.0	208	25.0
교수의 대학를 통해 최대한 인간관계 맺고 싶다	200	66.0	77	66.0	188	69.0	88	72.0	150	72.0	120	72.0	169	73.0	214	65.0	1206	69.0	615	68.0	591	70.0
교수와 특별한 인간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	9	3.0	5	4.3	9	3.3	1	0.8	2	1.0	8	4.8	6	2.6	17	5.2	57	3.3	39	4.3	18	2.1
기 타	6	2.0	1	0.9	2	0.7	2	1.6	5	2.4	4	2.4	3	1.3	7	2.1	30	1.7	22	2.4	8	0.9
무 응 답	8	2.7	1	0.9	9	3.3	4	3.3	3	1.4	2	1.2	3	1.3	6	1.8	36	2.1	13	1.4	23	2.7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2) 교수에 대한 기대

교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교수와의 인간관계 여부 <표 III-47>의 반응 처럼 인간적 지도가 66.0%로 가장 우선적이며, 그 다음이 충실한 강의에 27.0%의 학생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를 기대하는 학생은 전체의 1.2%에 그쳤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인간적 지도를 더 바라고 있으나, 충실한 강의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교수에 대한 기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충실한강의	105	35.0	33	28.0	80	29.0	29	24.0	44	21.0	43	26.0	51	22.0	83	25.0	468	27.0	214	24.0	254	30.0
인간적지도	176	58.0	76	65.0	170	62.0	82	67.0	154	74.0	112	67.0	171	73.0	217	66.0	1,158	66.0	620	69.0	538	63.0
지역사회봉사	2	0.7	3	2.6	6	2.2	3	2.5	-	-	4	2.4	1	0.4	2	0.6	21	1.2	16	1.8	5	0.6
기 타	7	2.3	1	0.9	5	1.8	-	-	4	1.9	1	0.6	4	1.7	12	3.6	34	1.9	24	2.7	10	1.2
무 응 답	11	3.7	4	3.4	12	4.4	8	6.6	5	2.4	6	3.6	6	2.6	15	4.6	67	3.8	26	2.9	41	4.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6. 대인관계

1) 친한 친구수

신입생들은 친한 친구수는 약간 있다에 53.0%로 가장 많았고, 많다에 39.0%, 적다에 7.3%의 순이며, 남녀간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 보다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학생들은 친한 친구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같은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단과대학별로는 법정대(50.0%), 해양대(43.0%) 순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으며, 공과대(59.0%), 사범대(56.0%) 신입생들은 약간의 친구를 사귀고 있었다.

<표 III-49>

친한 친구수

대학 친구수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많다	113	38.0	59	50.0	109	40.0	42	34.0	90	43.0	72	43.0	90	39.0	112	34.0	687	39.0	363	40.0	324	38.0
약간 있다	163	54.0	46	39.0	147	54.0	68	56.0	95	46.0	86	52.0	123	53.0	193	59.0	921	53.0	466	52.0	455	54.0
적다	22	7.3	11	9.4	15	5.5	11	9.0	22	11.0	8	4.8	18	7.7	21	6.4	128	7.3	65	7.2	63	7.4
무응답	3	1.0	1	0.9	2	0.7	1	0.8	-	-	-	-	2	0.9	3	0.9	12	0.7	6	0.7	6	0.7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2) 사귀고 싶은 친구의 유형

학생은 앞으로 어떤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까?란 질문에 69.0%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제일 많은 학생들이 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에 22.0%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여학생 보다 많은 수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친구를 원하는 남녀 학생의 비는 똑 같았다.

< 표 III-50 >

사귀고 싶은 친구의 유형

친구유형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적으로 대화할수있는 친구	18	6.0	6	5.1	13	4.8	8	6.6	6	2.9	4	2.4	3	1.3	6	1.8	64	3.7	22	2.4	42	5.0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친구	61	20.0	16	14.0	56	21.0	17	14.0	58	28.0	35	21.0	45	19.0	74	22.0	362	21.0	186	21.0	176	21.0
미움을 당하고야 할수있는 친구	200	66.0	83	71.0	184	67.0	88	72.0	135	65.0	122	73.0	174	75.0	225	68.0	1211	69.0	645	72.0	566	67.0
취급을 받거나 대조되는 친구	3	1.0	2	1.7	1	0.4	1	0.8	1	0.5	3	1.8	-	-	5	1.5	16	0.9	13	1.4	3	0.4
기 타	5	1.7	5	4.3	6	2.2	2	1.6	4	1.9	-	-	4	1.7	7	2.1	33	1.9	16	1.8	17	2.0
무 응 답	14	4.7	5	4.3	13	4.8	6	4.9	3	1.4	2	1.2	7	3.0	12	3.6	62	3.5	18	2.0	44	5.2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3)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지각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비교적 원만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6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27.0%, 그리고 매우 원만하다는 응답이 15.0% 순으로, 이는 전체 신입생들의 98.0%로 자신의 대인관계가 원만(비교적 원만, 보통 또는 매우 원만)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 작년과 비교하면, 1.2%가 증가(96.8%→98.0%)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와 단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I - 51 >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지각

대학 대인관계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원만하다	42	14.0	22	19.0	38	14.0	17	14.0	36	17.0	32	19.0	30	13.0	39	12.0	256	15.0	160	18.0	96	11.0
비교적 원만하다	184	61.0	65	56.0	169	62.0	76	62.0	125	60.0	105	63.0	149	64.0	193	59.0	1,066	61.0	530	59.0	536	63.0
보통이다	66	22.0	25	21.0	59	22.0	25	20.0	39	19.0	26	16.0	47	20.0	89	27.0	376	22.0	184	20.0	192	23.0
원만치 않은 편이다	8	2.7	4	3.4	6	2.2	3	2.5	5	2.4	2	1.2	5	2.1	6	1.8	39	2.2	20	2.2	19	2.2
전혀 원만치 않다	-	-	-	-	-	-	-	-	-	-	-	-	-	-	-	-	-	-	-	-	-	-
무응답	1	0.3	1	0.9	1	0.4	1	0.8	2	1.0	1	0.6	2	0.9	2	0.6	11	0.6	6	0.7	5	0.6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4)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하여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사교성의 부족(37.0%)과 지나친 소극성(16.0%)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많은 학생들이 응답하였으며, 이외에도 열등의식(7.6%), 우월의식(3.0%), 신체적 열등감(2.0%), 가정환경의 곤란(1.0%) 등의 이유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남녀간에는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이 사교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남학생들은 자신의 지나친 소극성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여학생 보다 더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였다.

<표 III-52>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대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자신의 지나친 소극성	52	17.0	21	18.0	48	18.0	11	9.0	34	16.0	25	15.0	39	17.0	58	18.0	288	16.0	163	18.0	125	15.0
사교성 부족	103	34.0	40	34.0	111	41.0	49	40.0	59	29.0	56	34.0	99	42.0	132	40.0	649	37.0	321	36.0	328	39.0
가정환경의 곤란	3	1.0	1	0.9	4	1.5	-	-	3	1.4	3	1.8	3	1.3	-	-	17	1.0	10	1.1	7	0.8
신체적 열등감	6	2.0	1	0.9	5	1.8	5	4.1	8	3.9	4	2.4	3	1.3	3	0.9	35	2.0	23	2.6	12	1.4
자신의 우월의식	12	4.0	4	3.4	7	2.6	4	3.3	5	2.4	9	5.4	3	1.3	9	2.7	53	3.0	34	3.8	19	2.2
자신의 열등의식	25	8.3	11	9.4	17	6.2	10	8.2	15	7.2	13	7.8	19	8.2	22	6.7	132	7.6	59	6.6	73	8.6
기 타	59	20.0	26	22.0	42	15.0	22	18.0	44	21.0	25	15.0	39	17.0	44	13.0	301	17.0	163	18.0	138	16.0
무 응 답	41	14.0	13	11.0	39	14.0	21	17.0	39	19.0	31	19.0	28	12.0	61	19.0	273	16.0	127	14.0	146	17.0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5) 이성교제의 경험여부

신입생들은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없다(53.0%), 있다(39.0%), 그리고 교제중 이다(4.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의 경험은 여학생 보다 남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생이 가장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 신입생들에 비해 이성교제의 경험이 많은 것(작년은 있다 30.0%, 없다 55.8%→금년은 있다 39.0%, 없다 53.0%)으로 나타났다.

<표 III-53> 이성교제의 경험여부

대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있 다	91	30.0	50	43.0	108	40.0	44	36.0	93	45.0	67	40.0	92	39.0	129	39.0	674	39.0	440	49.0	234	28.0
없 다	178	59.0	55	47.0	145	53.0	71	58.0	100	48.0	87	52.0	118	51.0	169	51.0	923	53.0	383	43.0	540	64.0
교제중이다	22	7.3	6	5.1	8	2.9	6	4.9	9	4.3	5	3.0	14	6.0	15	4.6	85	4.9	43	4.8	42	5.0
기 타	7	2.3	4	3.4	10	3.7	1	0.8	2	1.0	5	3.0	7	3.0	11	3.3	47	2.7	25	2.8	22	2.6
무 응 답	3	1.0	2	1.7	2	0.7	-	-	3	1.4	2	1.2	2	0.9	5	1.5	19	1.1	9	1.0	10	1.2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6) 자신의 이성교제에 대한 지각

학생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성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 대하여 알아본 결과, 서로 도움이 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성과의 교제를 원한다 4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폭 넓은 교제를 원한다 44.0%로 대다수의 신입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성과의 교제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여학생 보다 남

학생이 서로 도움이 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성과의 교제를 더 원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자연스럽게 폭 넓은 교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업의 충실을 위하여 사귄 필요가 없다는 응답에는 남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54> 자신의 이성교제에 대한 지각

대학 교제에 대한지각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합의점을위하여 야결함없다	9	30	5	43	5	18	5	41	4	19	2	12	10	43	5	15	45	26	27	30	18	21
성도응답에 해당하는이과의 교제를한다	150	500	43	37.0	132	48.0	58	48.0	109	53.0	95	57.0	113	48.0	162	49.0	862	49.0	497	55.0	365	43.0
자연업과같은 교제를 원한다	131	44.0	63	54.0	122	45.0	52	43.0	88	43.0	64	39.0	102	44.0	144	44.0	766	44.0	338	38.0	428	50.0
교수부 또는 학생조직을 스스로 교제한다	1	0.3	2	1.7	1	0.4	-	-	3	1.4	-	-	1	0.4	2	0.6	10	0.6	5	0.6	5	0.6
무 응 답	10	3.3	4	3.4	13	4.8	7	5.7	3	1.4	5	3.0	7	3.0	16	4.9	65	3.7	33	3.7	32	3.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3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7)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논 대상

자기 문제에 대해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 주로 의논하는 대상은 친구 42.0%, 형제와 본인 스스로에 각 16.0%, 어머니 10.0%, 아버지 4.2%, 선·후배 2.2% 등의 순으로 많은 학생들이 친구와 의논하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논 대상

대학 의논상대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아 버 지	6	2.0	5	4.3	10	3.7	2	1.6	15	7.2	7	4.2	8	3.4	21	6.4	74	4.2	61	6.8	13	1.5
어 머 니	29	9.6	15	1.3	29	11.0	15	12.0	30	14.0	10	6.0	22	9.4	27	8.2	177	10.0	80	8.9	97	11.0
형 제	48	16.0	19	16.0	43	16.0	21	17.0	31	15.0	26	16.0	29	12.0	54	16.0	271	16.0	122	14.0	149	18.0
친 척	-	-	3	2.6	-	-	-	-	1	0.5	-	-	3	1.3	3	0.9	10	0.6	7	0.8	3	0.4
스 승	4	1.3	1	0.9	2	0.7	2	1.6	3	1.4	2	1.2	2	0.9	2	0.6	18	1.0	10	1.1	8	0.9
선·후배	8	2.7	4	3.4	3	1.1	1	0.8	7	3.4	2	1.2	4	1.7	9	2.7	38	2.2	26	2.9	12	1.4
친 구	122	41.0	43	37.0	124	45.0	45	37.0	86	42.0	79	48.0	105	45.0	128	39.0	732	42.0	374	42.0	358	42.0
본인 스스로	53	18.0	19	16.0	39	14.0	25	20.0	25	12.0	29	17.0	43	18.0	50	15.0	283	16.0	157	17.0	126	15.0
기 타	5	1.7	2	1.7	8	2.9	2	1.6	3	1.4	2	1.2	5	2.1	6	1.8	33	1.9	18	2.0	15	1.8
무 응 답	26	8.6	6	5.1	15	5.5	9	7.4	6	2.9	9	5.4	12	5.2	29	8.8	112	6.4	45	5.0	67	7.9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3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7. 서어클 및 부직활동

1) 서어클활동 희망 분야

신입생들이 대학에서 활동하고 싶은 서어클의 분야는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31.0%의 학생들이 취미 분야의 서어클을 원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 분야(18.0%), 교양·학술 분야(17.0%), 봉사 분야(5.6%) 서어클을 선호하였다. 남녀간의 차이는 취미, 교양·학술과 봉사 분야는 여학생이, 스포츠 분야의 서어클은 남학생이 더 선호하였다.

< 표 III - 56 > 서어클활동 희망 분야

서어클활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교양·학술분야	70	23.0	19	16.0	57	21.0	22	18.0	30	14.0	14	8.4	36	15.0	57	17.0	305	17.0	112	12.0	193	23.0
스포츠분야	35	12.0	18	15.0	50	18.0	14	11.0	50	24.0	44	27.0	39	17.0	68	21.0	318	18.0	213	24.0	105	12.0
취미분야	90	30.0	29	25.0	76	28.0	34	28.0	68	33.0	55	33.0	89	38.0	108	33.0	549	31.0	265	29.0	284	33.0
종교분야	9	3.0	2	1.7	9	3.3	5	4.1	4	1.9	3	1.8	3	1.3	3	0.9	38	2.2	16	1.8	22	2.6
지역사회분야	6	2.0	2	1.7	11	4.0	2	1.6	3	1.4	1	0.6	2	0.9	9	2.7	36	2.1	20	2.2	16	1.9
봉사분야	21	7.0	9	7.7	8	2.9	12	9.8	14	6.8	14	8.4	13	5.6	7	2.1	98	5.6	33	3.7	65	7.7
체육분야	3	1.0	2	1.7	7	2.6	1	0.8	8	3.9	4	2.4	5	2.1	7	2.1	37	2.1	35	3.9	2	0.2
향년바없다	45	15.0	23	20.0	23	8.4	16	13.0	23	11.0	15	9.0	29	12.0	43	13.0	217	12.0	128	14.0	89	10.0
기 타	10	3.3	6	5.1	14	5.1	8	6.6	4	1.9	7	4.2	7	3.0	7	2.1	63	3.6	34	3.8	29	3.4
무 응 답	12	4.0	7	6.0	18	6.6	8	6.6	3	1.4	9	5.4	10	4.3	20	6.1	87	5.0	44	4.9	43	5.1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2) 읽고 싶은 도서의 분야

신입생이 주로 읽고 싶은 도서의 분야는 문학 및 취미도서 54.0%, 교양도서 21.0%, 전공과 관련된 도서 15.0%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별로는 문학 및 취미도서는 남학생이, 교양도서 및 전공과 관련된 도서는 여학생이 더 읽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학 및 취미도서를 제일 많이 읽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는 해양대생이며, 교양도서는 법정대생,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도서는 인문대생들이 가장 많이 읽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57>

읽고 싶은 도서의 분야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국연합도서	70	23.0	13	11.0	28	10.0	20	16.0	24	12.0	17	10.0	30	13.0	65	20.0	267	15.0	129	14.0	138	16.0
교양도서	51	17.0	34	29.0	73	27.0	31	25.0	43	21.0	28	17.0	49	21.0	58	18.0	367	21.0	176	20.0	191	23.0
문학책과 도서	160	53.0	60	51.0	157	58.0	62	51.0	120	58.0	103	62.0	135	58.0	179	54.0	976	56.0	517	57.0	459	54.0
기 타	8	2.7	7	6.0	9	3.3	3	2.5	14	6.8	13	7.8	12	5.2	11	3.3	77	4.4	52	5.8	25	2.9
무 응 답	12	4.0	3	2.6	6	2.2	6	4.9	6	2.9	5	3.0	7	3.0	16	4.9	61	3.5	26	2.9	35	4.1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3) 학비 조달방법

신입생의 학비 조달방법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대다수인 95.0%의 학생이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본인 3.1%, 형제 1.1%, 용자 및 차용 0.5%, 친척 0.3%로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부모외의 사람으로부터 학비를 조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는 학생이 많은 대학은 법정대, 경상대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학비 조달방법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 모	280	93.0	105	90.0	243	89.0	116	95.0	194	94.0	165	99.0	231	99.0	319	97.0	1,653	95.0	847	94.0	806	95.0
형 제	4	1.3	1	0.9	2	0.7	3	2.5	4	1.9	1	0.6	1	0.4	3	0.9	19	1.1	12	1.3	7	0.8
친 척	2	0.7	-	-	-	-	-	-	1	0.5	-	-	1	0.4	1	0.3	5	0.3	4	0.4	1	0.1
본 인	12	4.0	10	8.5	20	7.3	2	1.6	6	2.9	-	-	-	-	4	1.2	54	3.1	29	3.2	25	2.9
용자 및 차용	1	0.3	1	0.9	3	1.1	1	0.8	2	1.0	-	-	-	-	-	-	8	0.5	4	0.4	4	0.5
무 응 답	2	0.7	-	-	5	1.8	-	-	-	-	-	-	-	-	2	0.6	9	0.5	4	0.4	5	0.6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4)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대학생활중 아르바이트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원한다(74.0%) 또는 절실히 원한다(11.0%)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85.0%이며, 남녀별로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높게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원하거나 절실히 원한다) 대학으로는 사범대(93.0%), 해양대(90.0%) 순이었다.

<표 III-59> 아르바이트 희망여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절실히원한다	39	13.0	9	7.7	20	7.3	14	11.0	31	15.0	21	13.0	27	12.0	30	9.1	191	11.0	94	10.0	97	11.0
원 한다	221	73.0	89	76.0	189	69.0	100	82.0	144	70.0	128	77.0	176	76.0	254	77.0	1301	74.0	638	71.0	663	78.0
별로 관심없다	27	9.0	13	11.0	43	16.0	7	5.7	23	11.0	11	6.6	20	8.6	34	10.0	178	10.0	117	13.0	61	7.2
생각한적없다	13	4.3	6	5.1	18	6.6	1	0.8	7	3.4	3	1.8	7	3.0	8	2.4	63	3.6	43	4.8	20	2.4
무 응 답	1	0.3	-	-	3	1.1	-	-	2	1.0	3	1.8	3	1.3	3	0.9	15	0.9	8	0.9	7	0.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5)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경우 주된 이유

신입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경우, 그 주된 이유로서는 용돈 마련(51.0%), 폭 넓은 사회생활(27.0%), 학비 마련(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극소수이긴 하지만, 가족의 생계 유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도 0.2%가 있었다.

<표 III-60>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경우 주된 이유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폭넓은사회생활	71	24.0	33	28.0	67	25.0	41	34.0	84	41.0	46	28.0	55	24.0	73	22.0	470	27.0	241	27.0	229	27.0
용돈 마련	164	54.0	51	44.0	146	53.0	51	42.0	74	36.0	97	58.0	139	60.0	178	54.0	900	51.0	456	51.0	444	52.0
학비 마련	22	7.3	7	6.0	14	5.1	13	11.0	19	9.2	10	6.0	14	6.0	13	4.0	112	6.4	54	6.0	58	6.8
가족의생계유지	2	0.7	-	-	1	0.4	-	-	-	-	-	-	-	-	1	0.3	4	0.2	2	0.2	2	0.2
기 타	7	2.3	4	3.4	11	4.0	2	1.6	7	3.4	1	0.6	5	2.1	8	2.4	45	2.6	23	2.6	22	2.6
무 응 답	35	12.0	22	19.0	34	12.0	15	12.0	23	11.0	12	7.2	20	8.6	56	17.0	217	12.0	124	14.0	93	11.0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8.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1)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입생들은 가장 많이 사치 및 부정부패(22.0%)를, 그 다음이 빈부의 격차(19.0%), 상호 불신(15.0%), 경제문제(13.0%), 정치인에 대한 불신문제(9.6%)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차이가 거의 없으며, 남녀와 단대별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1>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문제	34	11.0	12	10.0	42	15.0	17	14.0	36	17.0	15	9.0	26	11.0	37	11.0	219	13.0	108	12.0	111	13.0
빈 부 의 격차문제	63	21.0	24	21.0	57	21.0	19	16.0	28	14.0	34	20.0	43	18.0	57	17.0	325	19.0	158	18.0	167	20.0
정치인에 대 한 불신문제	22	7.3	9	7.7	21	7.7	7	5.7	28	14.0	18	11.0	27	12.0	36	11.0	168	9.6	92	10.0	76	9.0
청 소 년 비행문제	4	1.3	3	2.6	11	4.0	2	1.6	5	2.4	8	4.8	3	1.3	8	2.4	44	2.5	30	3.3	14	1.7
사회질서(범 죄·교통)문제	33	11.0	13	11.0	17	6.2	17	14.0	20	9.7	16	9.6	34	15.0	34	10.0	184	11.0	89	9.9	95	11.0
사치 및 부 정부패 문제	65	22.0	25	21.0	59	22.0	25	20.0	45	22.0	32	19.0	49	21.0	83	25.0	383	22.0	188	21.0	195	23.0
상호 불신 문 제	48	16.0	21	18.0	44	16.0	19	16.0	30	14.0	23	14.0	35	15.0	43	13.0	263	15.0	160	18.0	103	12.0
기 타	8	2.7	2	1.7	8	2.9	6	4.9	5	2.4	3	1.8	8	3.4	15	4.6	55	3.1	29	3.2	26	3.1
무 응 답	24	8.0	8	6.8	14	5.1	10	8.2	10	4.8	17	10.0	8	3.4	16	4.9	107	6.1	46	5.1	61	7.2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2)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신입생들은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지역개발(38.0%)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화의 낙후성(22.0%), 농업문제(13.0%), 환경 보존문제(11.0%), 상공업의 약화(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특히 상공업의 약화는 남학생이, 문화의 낙후성 문제는 여학생들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단과대학별로는 지역개발문제에 해양대(45.0%), 법정대와 경상대(각 44.0%) 신입생들이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문화의 낙후성문제는 인문대생이, 농업문제는 농과대생이, 환경 보존문제는 자연대생이, 상공업의 약화문제는 해양대생들이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큰 문제점이라 지적하였다.

<표 III-62>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

문 제 점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청 소 년 비행문제	7	23	4	34	1	0.4	1	0.8	4	19	5	30	4	17	6	18	32	18	24	27	8	0.9
지 역 개 발 문 제	101	34.0	52	44.0	120	44.0	37	30.0	62	30.0	75	45.0	82	35.0	136	41.0	665	38.0	344	38.0	321	38.0
상 공 업 의 약 화	6	2.0	4	3.4	12	4.4	5	4.1	8	3.9	11	6.6	7	3.0	17	5.2	70	4.0	60	6.7	10	1.2
교 통 문 제	1	0.3	1	0.9	2	0.7	1	0.8	-	-	-	-	1	0.4	-	-	6	0.3	1	0.1	5	0.6
문 화 의 낙 후 성 문 제	98	33.0	26	22.0	54	20.0	32	26.0	36	17.0	23	14.0	51	22.0	70	21.0	390	22.0	162	18.0	228	27.0
환 경 보 존 문 제	38	13.0	10	8.5	24	8.8	13	1.1	12	5.8	19	11.0	32	14.0	44	13.0	192	11.0	107	12.0	85	10.0
교 육 문 제	6	2.0	3	2.6	5	1.8	5	4.1	2	1.0	4	2.4	5	2.1	7	2.1	37	2.1	16	1.8	21	2.5
농 업 문 제	23	7.6	11	9.4	34	12.0	20	16.0	53	26.0	21	13.0	30	13.0	28	8.5	220	13.0	109	12.0	111	13.0
제 주 사 람 이 아 니 라 서 잘 모 르 는 다	5	1.7	-	-	3	1.1	-	-	23	11.0	1	0.6	12	5.2	4	1.2	48	2.7	38	4.2	10	1.2
무 응 답	16	5.3	6	5.1	18	6.6	8	6.6	7	3.4	7	4.2	9	3.9	17	5.2	88	5.0	39	4.3	49	5.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3)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 정도

청소년 비행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매우 또는 비교적 심각하다) 78.0%로 대다수가 심각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저 그렇다(16.0%), 심각하지 않다(심각하지 아니한 편 또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5.4%로 나타났다. 남녀간에는 심각하다(매우 또는 비교적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여학생 보다 남학생들이 높게 대답하였다. 대학별로 보면 사범대생들의 대부분이 심각하다(90.0%)고 답하였다.

<표 III-63>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 정도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심각하다	98	33.0	35	30.0	67	25.0	36	30.0	47	23.0	39	23.0	61	26.0	80	24.0	463	26.0	229	25.0	234	28.0
비교적 심각하다	143	48.0	59	50.0	144	53.0	73	60.0	117	57.0	79	48.0	128	55.0	162	49.0	905	52.0	447	50.0	458	54.0
그저 그렇다	38	13.0	18	15.0	45	16.0	11	9.0	29	14.0	32	19.0	38	16.0	60	18.0	271	16.0	163	18.0	108	13.0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10	3.3	3	2.6	10	3.7	1	0.8	7	3.4	10	6.0	5	2.1	18	5.5	64	3.7	36	4.0	28	3.3
전혀 심각하지 않다	7	2.3	1	0.9	5	1.8	1	0.8	6	2.9	4	2.4	1	0.4	5	1.5	30	1.7	17	1.9	13	1.5
무응답	5	1.7	1	0.9	2	0.7	-	-	1	0.5	2	1.2	-	-	4	1.2	15	0.9	8	0.9	7	0.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4)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차이 정도

신입생들은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심하다(매우 또는 다소 심하다)에 69.3%, 그저 그렇다 26.0%, 없다(별로 또는 전혀 없다)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학생이 더 느끼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와 심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 세대 차이가 심하다고 높은 반응을 보인 대학은 법정대(77.4%)와 인문대(74.0%)였다.

<표 III-64>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차이 정도

대 학 차이정도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심하다	32	11.0	11	9.4	17	6.2	6	4.9	13	6.3	13	7.8	20	8.6	15	4.6	127	7.3	64	7.1	63	7.4
다소 심하다	189	63.0	80	68.0	179	66.0	78	64.0	121	58.0	100	60.0	135	58.0	201	61.0	1,083	62.0	538	60.0	545	64.0
그저 그렇다	59	20.0	20	17.0	67	25.0	31	25.0	63	30.0	51	31.0	67	29.0	103	31.0	461	26.0	257	29.0	204	24.0
별로 없다	18	6.0	5	4.3	7	2.6	7	5.7	7	3.4	1	0.6	9	3.9	8	2.4	62	3.5	32	3.6	30	3.5
전혀 없다	-	-	-	-	1	0.4	-	-	-	-	-	-	2	0.9	1	0.3	4	0.2	2	0.2	2	0.2
무 응 답	3	1.0	1	0.9	2	0.7	-	-	3	1.4	1	0.6	-	-	1	0.3	11	0.6	7	0.8	4	0.5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5)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학생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실력이 52.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력(20.0%), 인간관계(12.0%), 인격(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에는 실력, 노력, 인격에 의하여 성공한다고 여학생들은 남학생 보다 높게, 그리고 남학생들은 여학생 보다 인간관계가 성공에 필요하다고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65>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대 학 성공요소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 별	7	2.3	1	0.9	2	0.7	2	1.6	3	1.4	5	3.0	-	-	2	0.6	22	1.3	12	1.3	10	1.2
가문·배경	1	0.3	1	0.9	1	0.4	-	-	2	1.0	1	0.6	1	0.4	2	0.6	9	0.5	8	0.9	1	0.1
실 력	161	53.0	60	51.0	143	52.0	57	47.0	98	47.0	69	42.0	128	55.0	189	57.0	905	52.0	450	50.0	455	54.0
인 격	20	6.6	8	6.8	17	6.2	10	8.2	11	5.3	15	9.0	11	4.7	12	3.6	104	5.9	49	5.4	35	6.5
인간관계	21	7.0	14	12.0	32	12.0	12	9.8	33	16.0	31	19.0	26	11.0	33	10.0	202	12.0	133	15.0	69	8.1
운	-	-	-	-	1	0.4	-	-	1	0.5	1	0.6	1	0.4	2	0.6	6	0.3	4	0.4	2	0.2
노 력	66	22.0	26	22.0	57	21.0	26	21.0	41	20.0	26	16.0	45	19.0	59	18.0	346	20.0	170	19.0	176	21.0
재 력	1	0.3	-	-	2	0.7	-	-	2	1.0	3	1.8	3	1.3	5	1.5	16	0.9	12	1.3	4	0.5
기 타	3	1.0	1	0.9	2	0.7	2	1.6	2	1.0	-	-	2	0.9	4	1.2	16	0.9	6	0.7	10	1.2
무 응 답	21	7.0	6	5.1	16	5.9	13	11.0	14	6.8	15	9.0	16	6.9	21	6.4	122	7.0	56	6.2	66	7.8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9. 진로관계

1) 대학 졸업후의 계획

대학 졸업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의 반수 이상(57.0%)이 취직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이 대학원 진학 22.0%, 유학 7.5%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었고, 단과대학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취직을 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은 경상대(68.0%)와 해양대(66.0%)이며, 대학원에 진학 하겠다고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은 사범대(30.0%)와 인문대(27.0%), 그리고 유학을 가겠다고 인문대(13.0%)와 농과대(11.0%) 신입생들이 높은 반응을 보였다. 작년에 비해 취직(55.8%→57.0%)과 유학(5.0%→7.5%)을 갈려는 학생이 증가한 반면에,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27.0%→22.0%)은 감소하였다.

<표 III-66>

대학 졸업후의 계획

대학 졸업후 계획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취직	131	44.0	70	60.0	186	68.0	72	59.0	104	50.0	109	66.0	140	60.0	193	59.0	1005	57.0	515	57.0	490	58.0
대학원진학	81	27.0	26	22.0	35	13.0	36	30.0	47	23.0	22	13.0	59	25.0	77	23.0	383	22.0	195	22.0	188	22.0
해외유학	40	13.0	2	1.7	15	5.5	2	1.6	23	11.0	12	7.2	12	5.2	25	7.6	131	7.5	65	7.2	66	7.8
결혼	6	2.0	4	3.4	3	1.1	-	-	8	3.9	10	6.0	7	3.0	5	1.5	43	2.5	39	4.3	4	0.5
기타	23	7.6	10	8.5	21	7.7	5	4.1	17	8.2	5	3.0	8	3.4	13	4.0	102	5.8	59	6.6	43	5.1
무응답	20	6.6	5	4.3	13	4.8	7	5.7	8	3.9	8	4.8	7	3.0	16	4.9	84	4.8	27	3.0	57	6.7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2) 직업 선택의 기준

직업을 선택할 경우, 그 기준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42.0%)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직업의 전문성에 18.0%, 경제적인 소득에 11.0%, 장래의 전망에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에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 그리고 직업의 전문성에 선택의 기준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비중을 더 두고 있으며, 경제적인 소득과 장래의 전망에 대하여는 남학생들이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67>

직업 선택의 기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적인소득	19	6.3	13	11.0	29	11.0	4	3.3	33	16.0	33	20.0	32	14.0	38	12.0	201	11.0	140	16.0	61	7.2
사회적지위	3	1.0	7	6.0	4	1.5	2	1.6	4	1.9	1	0.6	2	0.9	6	1.8	29	1.7	18	2.0	11	1.3
사회봉사	7	2.3	8	6.8	9	3.3	3	2.5	7	3.4	1	0.6	2	0.9	2	0.6	39	2.2	24	2.7	15	1.8
장래희망	35	12.0	8	6.8	34	12.0	12	9.8	24	12.0	16	9.6	20	8.6	26	7.9	175	10.0	103	11.0	72	8.5
직업의전문성	46	15.0	16	14.0	59	22.0	13	11.0	28	14.0	34	20.0	36	15.0	83	25.0	315	18.0	147	16.0	168	20.0
재학기간의안정	162	54.0	37	32.0	98	36.0	71	58.0	78	38.0	59	36.0	107	46.0	129	39.0	741	42.0	347	39.0	394	46.0
직업의안정성	19	6.3	19	16.0	31	11.0	12	9.8	27	13.0	12	7.2	18	7.7	24	7.3	162	9.3	85	9.4	77	9.1
기 타	2	0.7	2	1.7	1	0.4	2	1.6	3	1.4	1	0.6	3	1.3	3	0.9	17	1.0	10	1.1	7	0.8
무 응 답	8	2.7	7	6.0	8	2.9	3	2.5	3	1.4	9	5.4	13	5.6	18	5.5	69	3.9	26	2.9	43	5.1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3)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평소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에 대한 물음에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면서 생활하겠다고 60.0%의 신입생들이 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면서가 13.0%,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생활하겠다고 8.3%로 나타났고, 남녀별로는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겠다는 비중이 여학생 보다 남학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여학생은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생활하겠다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I-68>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31	10.0	17	15.0	19	7.0	22	18.0	21	10.0	7	4.2	10	4.3	18	5.5	145	8.3	65	7.2	80	9.4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	172	57.0	62	53.0	172	63.0	54	44.0	123	59.0	113	68.0	144	62.0	216	66.0	1,056	60.0	559	62.0	497	59.0
사회적으로 남을 지도하는 생활	33	11.0	7	6.0	15	5.5	18	15.0	9	4.3	2	1.2	20	8.6	12	3.6	116	6.6	49	5.4	67	7.9
전통에 헌신하는 생활	29	9.6	10	8.5	15	5.5	14	11.0	13	6.3	6	3.6	13	5.6	19	5.8	119	6.8	54	6.0	65	7.7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23	7.6	15	13.0	40	15.0	7	5.7	35	17.0	30	18.0	36	15.0	43	13.0	229	13.0	140	16.0	89	10.0
무 응 답	13	4.3	6	5.1	12	4.4	7	5.7	6	2.9	8	4.8	10	4.3	21	6.4	83	4.7	33	3.7	50	5.9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10.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기대

1)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여부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학생들의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를 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과반수 이상인 56.0%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였으나, 원치 않은 학생도 42.0% 됐다. 그리고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67.7%→56.0%)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간에는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이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덜 상담을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받기를 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는 사범대(63.0%), 그리고 상담 받기를 원치 않은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으로는 인문대와 법정대(각 46.0%) 순이다.

<표 III-69>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여부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받고 싶다	154	51.0	61	52.0	160	59.0	77	63.0	127	61.0	84	51.0	134	58.0	181	55.0	978	56.0	480	53.0	498	59.0
받고 싶지 않다	139	46.0	54	46.0	109	40.0	42	34.0	75	36.0	75	45.0	95	41.0	137	42.0	726	42.0	403	45.0	323	38.0
무 응 답	8	2.7	2	1.7	4	1.5	3	2.5	5	2.4	7	4.2	4	1.7	11	3.3	44	2.5	17	1.9	27	3.2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2) 상담을 받고 싶은 분야

신입생들은 어떤 문제의 상담을 원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취업(16.0%), 교우 및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적응문제(각 15.0%), 진학(10.0%), 성격(5.4%), 유학(3.3%), 이성 및 성(2.2%), 가정(1.5%), 종교(0.7%)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무응답자와 기타가 30.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는 교우 및 대인관계,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 취업의 순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 분야로 나타났는데, 금년에는 분야가 다소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남녀별로 남학생이 높은 비율로 응답한 분야는 진학, 성격, 유학, 이성 및 성, 가정, 종교 등의 문제이며, 여학생인 경우는 취업, 교우 및 대인관계, 그리고 학교생활의 적응문제로 나타났다.

< 표 III-70 > 상담을 받고 싶은 분야

대 학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성격문제	23	7.6	4	3.4	11	4.0	6	4.9	12	5.8	11	6.6	9	3.9	19	5.8	95	5.4	60	6.7	35	4.1
교우 및 대인 관계 문제	43	14.0	19	16.0	56	21.0	18	15.0	26	13.0	20	12.0	50	21.0	35	11.0	267	15.0	126	14.0	141	17.0
가정문제	5	1.7	1	0.9	7	2.6	-	-	4	1.9	4	2.4	2	0.9	3	0.9	26	1.5	17	1.9	9	1.1
학교생활 적응문제	44	15.0	17	15.0	39	14.0	23	19.0	38	18.0	21	13.0	40	17.0	36	11.0	258	15.0	111	12.0	147	17.0
종교문제	1	0.3	2	1.7	2	0.7	-	-	3	1.4	2	1.2	1	0.4	2	0.6	13	0.7	13	1.4	-	-
이 성 및 성 문제	5	1.7	1	0.9	8	2.9	-	-	7	3.4	8	4.8	2	0.9	8	2.4	39	2.2	35	3.9	4	0.5
진학문제	24	8.0	16	14.0	28	10.0	14	11.0	21	10.0	11	6.6	29	12.0	40	12.0	183	10.0	96	11.0	87	10.0
해외유학 문 제	11	3.7	4	3.4	9	3.3	3	2.5	9	4.3	7	4.2	5	2.1	10	3.0	58	3.3	34	3.8	24	2.8
취업문제	40	13.0	20	17.0	38	14.0	20	16.0	34	16.0	28	17.0	37	16.0	56	17.0	273	16.0	120	13.0	153	18.0
기 타	22	7.3	8	6.8	16	5.9	8	6.6	13	6.3	15	9.0	7	3.0	21	6.4	110	6.3	64	7.1	46	5.4
무 응 답	83	28.0	25	21.0	59	22.0	30	25.0	40	19.0	39	23.0	51	22.0	99	30.0	426	24.0	224	25.0	202	24.0
계	301	100.0	117	100.0	273	100.0	122	100.0	207	100.0	166	100.0	233	100.0	329	100.0	1,748	100.0	900	100.0	848	100.0

IV. 요약 및 제언

본 신입생 실태 조사는 '94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2,1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 중 1,748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이는 전체 신입생의 81.6%로 작년 88.9%에 비해 조사에 응한 학생의 비율이 낮았다.

조사 결과는 신입생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단과대학 및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성요인별 분석

1) 인적 배경

금년도 신입생들을 보면, 남학생이 전체의 55.3%, 여학생이 44.7%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 남녀별 구성비는 '89, '90학년도에는 여학생 비율이 50%를 넘다가 '91학년도 부터는 여학생 비율이 점차 그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여학생수의 비율이 많아 여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복지정책 등의 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입생의 연령층과 출생 순위가 만18세와 첫번째 자녀로 태어난 것이 각각 65.0%와 29.0%로 가장 많았다.

학생의 본적지와 성장지는 87.6%, 91.7%로, 대부분 제주도에서 태어나 자라났으며, 입학후의 거주는 자기집인 경우가 72.0%로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외에 하숙, 자취, 친척집, 그리고 기숙사 등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학생도 27.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숙사의 시설 확충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재수하지 않고 바로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은 86.0%로 작년에 비해 0.1% 증가했고, 재작년에 비하여서는 4.4%가 증가하여 재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신입생들의 종교는 17.0%가 불교였으며, 또한 천주교와 기독교는 9.7%로 나타났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은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61.0%로 작년에 비해 1.4%가 줄었다.

음주여부에 대해서는 69.0%가 술을 마시고 있는 반면에, 30.0%가 술을 마시지 않고

있으며, 작년도에 비해 술 마시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술 마시는 여학생의 비율이 작년(31.6%→52.0%)에 비해 현저히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흡연에 대해서는 25.0%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74.0%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흡연율은 극소수인 0.2%에 불과하였다.

신입생들은 자신에 대해 자긍심이 높은 것(보통 이상이 93.2%)으로 나타났고, 목표와 소망에 대한 장래의 성취 가능성을 67.0%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3.4%만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었다.

2) 가정 환경

신입생들의 가정 환경을 보면, 91.0%는 부모가 모두 살아계셨으며, 보호자의 연령은 40~50대가 9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는 작년의 분포 90.7% 보다 2.3%가 증가한 수치로 보호자의 연령이 젊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보호자의 교육 수준은 신입생 전체의 60.0%가 고졸 이상 이었다.

가족수에 있어서는 총 가족수가 5명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대부분 자기집으로 8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자의 직업은 가장 많은 수가 농업(35.0%)이었으며, 가정의 월 수입을 보면, 작년에 비하여 100만원 이상인 소득의 가구가 8.5% 증가한 반면에, 69만원 이하인 소득의 가구가 19.6% 감소하였다. 이는 가정의 경제 수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상 혹은 중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작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하인 학생이 44.0%, 하상이 4.5%, 하가 2.6%로 전체 신입생의 과반수가 넘는 51.1% 정도의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의 종교는 59.0%가 불교이며, 신입생 가정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화목한 편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는 좋은 편이었으며, 가정에서의 큰 문제점은 부모와의 견해 차이와 경제문제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사물을 보는 견해차는 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가족중 개인적 문제의 의논은 형, 누나, 오빠, 언니 등 순위 형제와 의논하고 있으며,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 주로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가족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는 학생도 전체의 22.0%로 부모와 자녀간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대학 및 학과 선택의 기준

신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은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폭 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학문적 지식을 위해서, 교양 및 인격 수양을 위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본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입학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선택시 고려한 주요 원인은 직업적 전망과 자신의 적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지망한 학과의 분야, 강의내용 또는 전망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 대체로 알고는 있으나, 약간 아는 정도이며, 전혀 모르는 신입생도 19.0%를 차지하고 있었고, 학과를 선택한 시기 역시, 입학원서 접수 직전이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이는 곧 성적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학과에 입학 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갖게 되는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입학후의 적응 지도와 전공분야의 장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 할 수 있는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보다 충실하게 계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예를 들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중에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 공부 방법,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및 스트레스 대처법, 학과별 교수와의 대화 시간 등을 마련하여 현행 하루에 치루어지는 것을 교수들과 함께 숙식을 하는 캠프 형식의 운영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그리고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60.0%의 학생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신의 선택한 학과에 다소 적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4) 대학생활

신입생들은 대부분 대학생활에서 잘 적응할 것이라고 하였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학업 성취, 진학, 성격 및 대학생활의 적응, 학비, 병역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 관해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 교육내용, 서어클 활동, 장학금 제도, 해외 유학, 아르바이트, 병무 제도 등의 순으로 밝혀 졌다. 대학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은 폭 넓은 사회경험을 들고 있으며, 어학훈련에 대

한 계획과 방법은 전체 신입생의 60.0%가 제1, 2외국어를 수시로, 그리고 평소 충실한 강의 수강과 사설학원을 통해서 실력 배양을 하겠다고 하였다.

5) 교수와의 관계

신입생들이 바라는 교수와의 인간관계는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싶다는 학생이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다는 학생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에 대한 기대 역시, 충실한 강의 보다는 인간적인 지도를 훨씬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감안할 때,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종래의 관행적인 지도교수제 보다는 교수와의 충분한 대화와 접촉이 가능한 교과별 캠프를 통한 대응 방안이 바람직할 것 같다.

6) 대인관계

신입생들은 사귀고 싶은 친구의 유형을 대다수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 있으며, 대인관계는 대체적으로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만하지 않은 학생도 2.8%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로는 사교성의 부족과 지나친 소극성의 순으로 들었다.

이성교제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계속 중인 학생은 43.9% 였으며,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이 53.0%를 차지했다. 또한 대학생활중 이성교제를 원하는 학생이 93.6%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원하고 있었다.

또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논하는 대상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친구와 의논하거나,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이 대인관계, 또는 이성관계에서의 오는 자신의 고민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신건강, 인간관계론, 성교육 등과 같은 교양강좌의 개설 및 증설, 또는 상담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7) 서어클 및 부직활동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중 활동하고 싶은 서어클의 분야는 취미와 스포츠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읽고 싶은 도서의 종류는 문학 및 취미, 교양, 전공과 관련된 도서의 순이었다.

학비 조달방법은 대다수의 학생이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본인, 형제, 용자 및 차용, 그리고 친척에게서 조달하겠다는 학생도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은 대다수이고, 원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 폭 넓은 사회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비 마련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의 비율과 부모 이외의 방법으로 학비를 조달 받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학자금 용자나 장학금 수혜 정책에 있어서 모든 단과대학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8)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신입생들이 보는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치 및 부정부패, 빈부의 격차, 상호 불신, 경제, 정치인에 대한 불신문제 등의 순으로 지적하였으며,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지역개발, 문화의 낙후성, 농업, 환경 보존, 상공업의 약화 등의 순을 들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 결과, 대다수가 심각하다고 답하였으며,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69.3%가 심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또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실력, 노력, 인간관계 등의 순위로 꼽아 매우 긍정적인 면을 보여 줬고, 소수의 학생은 가문·배경, 운, 재력 등을 들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9) 진로관계

졸업후 계획에 대해서는 취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5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학원 진학(22.0%), 유학(7.5%)의 순이었다. 작년에 비해 취직과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한 반면에,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은 감소하였다.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중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의 전문성, 경제적인 소득, 장래의 전망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나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과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 가겠다는 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기대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담을 받고 싶은 분야는 취업, 교우 및 대인관계, 학교생활 적응, 진학, 성격, 유학, 이성 및 성, 가정, 종교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학생 상담기관인 학생생활연구소의 기능 강화와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별 특성

1) 인문대학

인문대학 신입생들은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들(전체 평균)에 비해,

- 여학생의 비율이 78.2%(전체 평균 44.7%)로 아주 높았다.
- 학생의 성장지는 대부분 제주도내(전체 평균 91.7%)인데, 그 중에서도 제주시에 성장한 학생의 비율이 54.0%(전체 평균 49.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생이 입학후 거주를 자기집에서 할 것이라는 학생의 비율이 77.0%(전체 집단 72.0%)로 타 단과대생들 보다는 가장 많았다.
- 졸업과 동시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82.0%(전체 평균 86.0%)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반면에, 재수생의 비율은 17.0%(전체 평균 13.8%)로 높은 편이었으며, 재수를 하게 된 이유로는 실력이 모자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8.3%(전체 평균 5.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응답자의 비율이 81.0%(전체 평균 81.0%)로 신뢰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가 94.0%(전체 평균 96.3%)로 전체 평균 보다는 낮

게 나타났으며, 그 중 보호자가 어머니인 경우의 학생 비율은 11.0%(전체 평균 9.3%)로 타 대학의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조부나 형, 누나, 오빠, 언니, 친척, 그리고 본인인 경우도 1.6%(전체 평균 0.9%)로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보호자의 연령은 40~50대가 92.0%(전체 평균 93.0%)로 전체 평균 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

- 보호자의 직업 및 직종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첫째 순위가 농업(35.0%)이며, 다음이 상업(17.0%), 셋째 순위가 공무원(11.0%)인데, 그 중 둘째 순위인 상업이 20.0%(전체 평균 17.0%)로 타 단과대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생 가정의 월 수입이 99만원 이하인 경우가 38.5%(전체 집단 43.7%)로 다른 대학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100만원 이상인 가정이 42.0%(전체 집단 36.0%)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 수준은 가정의 월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데, 중하~하가 46.3%(전체 집단 51.1%)로 전체 집단 보다 낮게 나타났고, 상~중상이 47.3%(전체 집단 43.5%)로 높게 나타났다.
- 가족중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느냐는 질문에 형, 누나, 오빠, 언니라고 한 비율이 37.0%(전체 평균 31.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의논하는 학생은 32.3%(전체 평균 30.7%)로 전체 평균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 대학 진학의 가장 큰 목적은 학문적 지식 습득이라고 한 비율이 33.0%(전체 평균 17.0%)로 높았고,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9.0%(전체 평균 26.0%)로 낮았다.
-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로는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8.0%(전체 평균 33.0%)로 낮았으며,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의 비율은 22.0%(전체 평균 19.0%)로 높게 나타났다.
-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긍심에 대한 물음에는 그저 그렇다와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은 76.3%(전체 평균 7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23.0%(전체 평균 25.0%)로 낮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한 요인은 직업적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6.0%(전체 평균 27.0%)로 낮게 나타났으며, 적성을 고려한 학생의 비율은 40.0%(전체 평균 25.0%)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 입학 가능성은 17.0%(전체 평균 24.0%)

%)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학과 선택시 직업적 전망이나, 입학 가능성 보다는 적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이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 보다는 매우 특징적이었다.

- 지망학과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약간알고 있었다와 전혀 몰랐었다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82.0%(전체 평균 92.0%)로 낮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었다에 16.0%(전체 평균 7.6%)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결정했다는 비율이 32.0%(전체 평균 45.0%)로 낮게 나타났고, 고교 1~3학년 1학기중에 결정했다는 학생이 31.0%(전체 평균 17.0%)로 아주 높았다. 그리고 고교 3학년 2학기과 중학교 또는 그 이전에 결정한 학생은 각각 25.0%와 9.0%(전체 평균 33.0%와 4.2%)로 전체 집단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즉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사전에 학과에 대한 지식과 적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했다고 풀이된다.
-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는 학생은 68.0%(전체 평균 60.0%)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이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4.0%(전체 평균 5.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정도를 물어 본 결과,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라고 한 학생은 83.6%(전체 평균 85.6%)로 낮으며,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6.3%(전체 평균 13.%)로 높게 나타났다.
- 대학생활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학업성취 27.0%,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 26.0%, 진학문제 24.0%(전체 평균 26.0%, 22.0%, 25.0%)로 약간 높·낮음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대학생활중에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에 38.0%(전체 집단 41.0%)로 낮으며,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에 22.0%(전체 집단 17.0%)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장학금 제도와 서어클활동에도 각 6.6%(전체 집단 7.0%와 8.4%)로 전체 집단 보다는 약간 낮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분야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 풀이된다.
- 어학 공부에 대하여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제1, 2외국어룰 수시로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75.0%(전체 평균 60.0%)로 아주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싶다는 학생이 66.0%(전체 평균 69.0%)로 약간 낮으며,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 26.0%(전체 평균 24.0%)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충실한 강의(35.0%→전체 평균 27.0%) 보다는 인간적 지도(58.0%→전체 평균 66.0%)를 더욱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신의 개인적 문제의 의논 상대가 부모(2.0~9.6%, 전체 평균 4.2~10.0%), 형제(16.0%, 전체 평균 16.0%) 보다는 친구(41.0%, 전체 평균 42.0%), 또는 본인 스스로(18.0%, 전체 평균 16.0%)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 서어클활동을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교양·학술분야라고 응답한 학생이 23.0%(전체 평균 17.0%)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주로 읽고 싶은 도서는 전공과 관련된 도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3.0%(전체 집단 15.0%)로 타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치 및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2.0%(전체 평균 22.0%)로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1.0%로 전체 평균 19.0%, 상호 불신문제는 16.0%로 전체 평균 15.0%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역개발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4.0%로 전체 평균 38.0% 보다는 낮으며, 문화의 낙후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3.0%(전체 평균 22.0%)로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인문대생 답게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또는 비교적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 평균 78.0%인데 반하여, 인문대 신입생의 경우는 81.0%가 응답하였고, 그중 매우 심각하다 33.0%(전체 평균 26.0%)로 타 단과대 보다는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실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53.0%(전체 평균 52.0%)로 약간 높았으며, 자신의 노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2.0%(전체 평균 20.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대학 졸업(병역을 필한)후의 계획에서는 취직을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44.0%(전

체 평균 57.0%)로 낮았으며, 해외 유학을 가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13.0%(전체 평균 7.5%)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직업을 선택할 경우의 기준으로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로 54.0%(전체 집단 42.0%)를 차지하여 전체 집단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장래 전망에 12.0%(전체 집단 10.0%)로 높았고, 이는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반응이었다.
- 제반문제에 대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은 51.0%(전체 집단 56.0%),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분야로는 취업문제에 13.0%(전체 집단 16.0%)와 교우 및 대인관계에 14.0%(전체 집단 15.0%)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15.0%(전체 집단 1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 법정대학

법정대학 신입생들은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들(전체 평균)에 비해,

- 남학생의 비율이 65.4%(전체 평균 55.3%)로 높았다.
- 학생의 본적지는 대부분 제주도내(전체 평균 87.6%)인데, 그 중에서도 제주시에 태어난 학생의 비율은 30.0%(전체 평균 26.0%)이며, 그 중 애월읍에서 자란 학생의 비율은 7.7%(전체 평균 4.2%)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졸업과 동시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81.0%(전체 평균 86.0%)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반면에, 재수생의 비율은 17.9%(전체 평균 13.8%)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수를 하게 된 이유로는 바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7.7%(전체 평균 5.7%)로 역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응답자의 비율이 77.0%(전체 평균 81.0%)로 신뢰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 학생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비율은 60.0%(전체 평균 61.0%)로 약간 낮은 반면, 불교 19.0%(전체 평균 17.0%)와 천주교 12.0%(전체 평균 9.7%)로 타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건강 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98.0%(전체 평균 95.0%)로 거의 대다수의 학생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가 94.4%(전체 평균 96.3%)로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며, 또한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형, 누나, 오빠, 언니, 친척, 그리고 본인인 경우가 1.8%(전체 평균 0.9%)로 타 대학의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았다. 또 보호자의 연령은 40~50대가 88.0%(전체 평균 93.0%)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에, 60~70대 이상은 8.6%(전체 평균 5.3%)로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보호자의 직업 및 직종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첫째 순위가 농업(35.0%)이며, 다음이 상업(17.0%), 셋째 순위가 공무원(11.0%)인데 그 중 셋째 순위인 공무원이 15.0%(전체 평균 11.0%)로 타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 학생 가정의 월 수입이 99만원 이하인 경우가 49.8%(전체 집단 43.7%)로 다른 대학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이상인 가정이 31.0%(전체 집단 36.0%)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 수준은 가정의 월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데, 중하~하가 56.1%(전체 집단 51.1%)로 전체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고, 상~중상이 37.0%(전체 집단 43.5%)로 낮게 나타났다.
- 보호자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82.2%(전체 평균 76.9%)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호자 보다는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불교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5.0%(전체 평균 59.0%)로, 또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호자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순위로 응답한 종교가 없는데 전체 평균 22.0% 보다 낮은 18.0%로 나타났다.
-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로는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2.0%(전체 평균 33.0%)로 낮았으며,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의 비율은 20.0%(전체 평균 19.0%)로 높았다.
-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금심에 대한 물음에는 그저 그렇다와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은 75.9%(전체 평균 7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23.0%(전체 평균 25.0%)로 낮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한 요인은 직업적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8.0%(전체 평균 27.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을 고려한 학생의 비율은 18.0%

(전체 평균 25.0%)로 낮게 나타났고, 입학 가능성은 15.0%(전체 평균 24.0%)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학과 선택시 적성이나, 입학 가능성 보다는 직업적 전망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이 특징이었다.

- 지망학과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약간 알고 있었다와 전혀 몰랐었다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0.0%(전체 평균 92.0%)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었다에 8.5%(전체 평균 7.6%)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결정했다는 비율이 47.0%(전체 평균 45.0%)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고교 3학년 2학기과 고교 1~3학년 1학기중에 결정했다는 학생이 각각 31.0%와 14.0%(전체 평균 33.0%와 17.0%)로 낮았다.
-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는 학생과 불만이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각각 58.0%, 3.5%(전체 평균 60.0%와 5.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정도를 물어 본 결과,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와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 학생은 82.4%와 17.6%(전체 평균 85.6%와 13.7%)로 나타났다.
- 대학생활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학업성취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1.0%(전체 평균 26.0%)로 높게,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문제는 20.0%(전체 평균 22.0%)로 낮게, 그리고 진학문제는 24.0%(전체 평균 25.0%)로 약간 낮은 반응을 하였다.
- 대학생활중에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에 34.0%(전체 평균 41.0%)로 낮으며,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에 24.0%(전체 평균 17.0%)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장학금 제도와 서어클활동에도 각각 8.5%와 7.7%(전체 평균 7.0%와 8.4%)로 전체 평균 보다는 약간 높고 낮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분야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 풀이된다.
- 어학 공부에 대하여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제1, 2외국어를 수시로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75.0%(전체 평균 60.0%)로 아주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싶다는 학생이 66.0%(전체 평균 69.0%)로 약간 낮으며,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 28.0%(전체 평균 24.0%)로 높게 나타났다.

-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충실한 강의(28.0%→전체 평균 27.0%) 보다는 인간적 지도(65.0%→전체 평균 66.0%)를 더욱 바라고 있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 자신의 개인적 문제의 의논 상대가 부모(4.3~13.0%, 전체 평균 4.2~10.0%), 형제(16.0%, 전체 평균 16.0%) 보다는 친구(37.0%, 전체 평균 42.0%), 또는 본인 스스로(16.0%, 전체 평균 16.0%)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 주로 읽고 싶은 도서는 교양도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9.0%(전체 집단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비 조달을 본인 스스로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8.5%(전체 집단 3.1%)로 가장 높았다.
-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치 및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1.0%(전체 평균 22.0%)로 약간 낮으며,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1.0%로 전체 평균 19.0%, 상호 불신문제는 18.0%로 전체 평균 15.0%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역개발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4.0%로 전체 평균 38.0% 보다는 높았으며, 문화의 낙후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2.0%(전체 평균 22.0%)로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문제는 3.4%(전체 평균 1.8%)로 다른 단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다.
-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실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51.0%(전체 평균 52.0%)로 약간 낮았으며, 자신의 노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2.0%(전체 평균 20.0%)로 다른 단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제반문제에 대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은 52.0%(전체 집단 56.0%)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분야로는 취업문제에 17.0%(전체 집단 16.0%)와 진학문제에 14.0%(전체 집단 10.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우 및 대인관계에 16.0%(전체 집단 15.0%)로 약간 높게,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15.0%(전체 집단 1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3) 경상대학

경상대학 신입생들은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들(전체 평균)에 비해,

- 여학생의 비율이 50.7%(전체 평균 44.7%)로 약간 높았다.
- 학생의 본적지는 대부분 제주도내(전체 평균 87.6%)인데, 그 중에서도 제주시에서 태어난 학생의 비율은 30.0%(전체 평균 26.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대단히 자랑스럽다 또는 자랑스럽다)하는 학생의 비율은 42.6%(전체 평균 37.2%)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다.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가 97.3%(전체 평균 96.3%)로 전체 평균 보다는 높은 편이며, 또 보호자의 연령은 40~50대가 91.0%(전체 평균 93.0%)로 전체 평균 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 학생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모 모두가 살아계신 학생의 비율이 93.0%(전체 평균 91.0%)로 다른 대학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부모 어느 분이든, 또는 모두가 돌아가신 학생은 6.9%(전체 평균 9.1%)로 낮은 편이었고, 가족수가 6명 이상의 비율이 57.0%(전체 평균 48.9%)로 타 단과대 신입생에 비하여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 보호자의 직업 및 직종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첫째 순위가 농업(35.0%)이며, 다음이 상업(17.0%), 셋째 순위가 공무원(11.0%)인데, 그 중 첫째 순위인 농업이 42.0%(전체 평균 35.0%)로 타 단과대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생 가정의 월 수입이 99만원 이하인 경우가 43.0%(전체 집단 43.7%)로 조금 낮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인 가정도 34.0%(전체 집단 36.0%)로 역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 수준은 가정의 월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데, 중하~하가 57.1%(전체 집단 51.1%)로 다른 대학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상~중상이 38.7%(전체 집단 43.5%)로 전체 집단 보다 낮았다.
-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하다(언제나 화목 또는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9.8%(전체 평균 73.8%)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고, 반면에 화목 못하다(화목치 못한 편이다 또는 전혀 화목치 않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5.1%(전체 평균 2.7%)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대학 진학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한 비율이 30.0%

- (전체 평균 26.0%), 폭 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3.0%(전체 평균 20.0%)로 높았다.
-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로는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5.0%(전체 평균 33.0%)로 낮았으며,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의 비율은 23.0%(전체 평균 19.0%)로 높게 반응하였다.
 -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긍심에 대한 물음에는 그저 그렇다와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은 68.8%(전체 평균 74.6%)로 낮은 반면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32.0%(전체 평균 25.0%)로 높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한 요인은 직업적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2.0%(전체 평균 27.0%)로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 보다는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적성과 입학 가능성을 고려한 학생의 비율은 각 19.0%(전체 평균 25.0%)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학과 선택시 적성이나, 입학 가능성 보다는 직업적 전망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이 타 단대 신입생들 보다는 특징적이었다.
 - 지망학과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약간 알고 있었다와 전혀 몰랐었다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5.0%(전체 평균 92.0%)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잘 알고 있었다에 3.7%(전체 평균 7.6%)로 타 단대 신입생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결정했다는 비율이 46.0%(전체 평균 45.0%)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고교 3학년 2학기중에 결정했다는 학생이 36.0%(전체 평균 33.0%)로 높았다.
 -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는 학생은 69.0%(전체 평균 60.0%)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이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0%(전체 평균 5.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정도를 물어 본 결과,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라고 한 학생은 88.8%(전체 평균 85.6%)로 높았으며,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0.3%(전체 평균 13.7%)로 낮게 나타났다.
 - 대학생활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학업성취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3.0%(전체 평균 26.0%)로 낮게 나타났으며,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과 진학문제는 각각 22.0

%와 25.0%(전체 평균 22.0%와 25.0%)로 동일하게 분포하였다.

- 대학생활중에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에 44.0%(전체 평균 41.0%)로 높았으며,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에 17.0%(전체 평균 17.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외에 서어클활동에도 7.7%(전체 평균 8.4%)로 전체 평균 보다는 낮게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에 6.6%(전체 평균 5.0%)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어학 공부에 대하여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제1, 2외국어를 수시로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74.0%(전체 평균 60.0%)로 아주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싶다는 학생이 69.0%(전체 평균 69.0%),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 24.0%(전체 평균 24.0%)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났다.
-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충실한 강의(29.0%→전체 평균 27.0%) 보다는 인간적 지도(62.0%→전체 평균 66.0%)를 더욱 바라고 있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 자신의 개인적 문제의 의논 상대가 부모(2.0~9.6%, 전체 평균 4.2~10.0%), 형제(16.0%, 전체 평균 16.0%) 보다는 친구(41.0%, 전체 평균 42.0%), 또는 본인 스스로(18.0%, 전체 평균 16.0%)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 서어클활동을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지역 및 사회문제 분야라고 응답한 학생이 4.0%(전체 평균 2.1%)로 타 단과대학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비 조달을 부모에게서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89.0%(전체 집단 9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사정이 다른 단대에 비해 좋지 않음을 시사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용자 및 차용하여 학비를 조달하겠다는 학생의 비율도 1.1%(전체 집단 0.5%)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치 및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2.0%(전체 평균 22.0%)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1.0%로 전체 평균 19.0%, 상호 불신문제는 16.0%로 전체 평균 15.0%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역개발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4.0%(전체 평균 38.0%)로 높았으며, 문화의 낙후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0%(전체 평균 22.0%)로 낮았다.
- 대학 졸업(병역을 필한)후의 계획에서는 취직을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68.0%(전체 평균 57.0%)로 다른 단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직업을 선택할 경우의 기준으로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로 32.0%(전체 집단 42.0%)를 차지하여 전체 집단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장래 전망에 12.0%(전체 집단 10.0%)로 높았고, 이는 다른 단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반응이었다.
- 제반문제에 대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은 59.0%(전체 집단 56.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분야로는 취업문제에 14.0%(전체 집단 16.0%)와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14.0%(전체 집단 15.0%)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우 및 대인 관계에 21.0%(전체 집단 15.0%), 가정문제 2.6%(전체 집단 1.5%)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4) 사범대학

사범대학 신입생들은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들(전체 평균)에 비해,

- 여학생의 비율이 79.1%(전체 평균 44.7%)로 아주 높았다.
- 학생의 본적지는 대부분 제주도내(전체 평균 87.6%)인데, 그 중에서도 서귀포시에서 태어난 학생의 비율은 17.0%(전체 평균 12.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졸업과 동시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94.0%(전체 평균 86.0%), 그 반면에 재수생의 비율은 5.7%(전체 평균 13.8%)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고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재수를 하게 된 이유로는 바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1%(전체 평균 5.7%)로 응답하였지만, 무응답자의 비율이 77.0%(전체 평균 81.0%)로 신뢰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 학생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비율은 61.0%(전체 평균 61.0%)로 전체 평균과 같게 나타났지만, 천주교 12.0%(전체 평균 9.7%)와 기독교 16.0%(전체 평균 9.7%)로 타 단과대 학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음주와 흡연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술과 담배를 안마시거나, 안피우는 '학생의 비율은 54.0%(전체 평균 30.0%)와 92.0%(전체 평균 74.0%)로 과반수, 또는 거의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가 98.0%(전체 평균 96.3%)로 타 대학의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았다. 그리고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형, 누나, 오빠, 언니, 친척, 그리고 본인인 경우도 1.6%(전체 평균 0.9%)로 타 대학의 신입생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또 보호자의 연령은 40~50대가 95.0%(전체 평균 93.0%)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60~70대 이상은 2.4%(전체 평균 5.3%)로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학생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모 모두가 살아계신 학생의 비율이 88.0%(전체 평균 91.0%)로 다른 대학에 비해 가장 낮은 반면에, 부모 어느 분이든, 또는 모두가 돌아가신 학생은 12.2%(전체 평균 9.1%)로 다른 대학 신입생에 비하여 가장 높았으며, 가족수가 6명 이상의 비율이 56.2%(전체 평균 48.9%)로 타 단과대 신입생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 가족 거주지는 가족이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97.5%(전체 평균 93.5%)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반면에, 도외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은 0.8%(전체 평균 5.1%)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 자기집인 경우가 87.0%(전체 평균 87.0%)로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12.3%(전체 평균 12.9%)로 전체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학생 가정의 월 수입이 99만원 이하인 경우가 47.9%(전체 집단 43.7%)로 높았으며, 100만원 이상인 가정도 27.4%(전체 집단 36.0%)로 다른 대학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 수준은 가정의 월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데, 중하~하가 48.6%(전체 집단 51.1%)로 전체 집단 보다 낮게 나타났고, 상~중상이 43.0%(전체 집단 43.5%)로 전체 집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월 수입과 경제 수준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므로 앞의 응답률로 보아서는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 가정에서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다정한 관계를 갖고 있

다에 65.0%로 1순위이며, 둘째는 지나치게 보호·간섭하고 있다에 15.0%, 그리고 세번째가 엄격히 통제한다에 10.0%로 나타났는데, 그 중 다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에 75.0%,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에 12.0%로 다른 단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생 가정에서의 문제점을 경제문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2.0%(전체 평균 23.0%)로 다른 대학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견해 차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학생의 비율은 30.0%(전체 평균 38.0%)로 다른 대학에 비하여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가족중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느냐는 질문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의논하는 학생은 34.9%(전체 평균 30.7%)이며, 그 중 특히 어머니와 의논하는 학생은 30.0%(전체 평균 22.0%)로 다른 단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대학 진학의 가장 큰 목적은 교양 및 인격 수양을 위해서와 학문적 지식 습득이라고 한 비율이 각각 22.0%(전체 평균 13.0%, 17.0%)로 높았다.
-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로는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4.0%(전체 평균 33.0%)로 낮았으며,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이라고 경제적으로 타 대학에 진학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각각 21.0%(전체 평균 19.0%, 13.0%)로 높게 나타났다.
-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공심에 대한 물음에는 그저 그렇다와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은 74.6%(전체 평균 74.6%)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23.0%(전체 평균 25.0%)로 낮았다.
-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한 요인은 직업적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0%(전체 평균 27.0%)로 낮게 나타났으며, 적성을 고려한 학생의 비율은 30.0%(전체 평균 25.0%)로 높게 나타났고, 입학 가능성 19.0%(전체 평균 24.0%)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학과 선택시 직업적 전망이나, 입학 가능성 보다는 적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이 타 단대 학생들 보다는 특징적이었다.
- 지망학과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약간알고 있었다와 전혀 몰랐었다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5.4%(전체 평균 92.0%)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잘 알고 있었다에 4.9%(전체 평균 7.6%)로 낮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결정했다는 비율이 39.0%(전체 평균

45.0%)로 낮게 나타났고, 고교 3학년 2학기중에 결정했다는 학생이 41.0%(전체 평균 33.0%)로 아주 높았다. 반면에 중학교 또는 그 이전에 결정한 학생은 8.2%(전체 평균 4.2%)로 전체 평균 보다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 즉 이는 다른 단대 신입생들 보다는 사전에 학과 선택에 신중히 결정했다고 풀이된다.

-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는 학생은 66.0%(전체 평균 60.0%)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이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5%(전체 평균 5.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정도를 물어 본 결과,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라고 한 학생은 88.0%(전체 평균 85.6%)로 높으며,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1.0%(전체 평균 13.7%)로 낮게 나타났다.
- 대학생활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학업성취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4.0%(전체 평균 26.0%)로 낮게 나타났으며,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과 진학문제는 각각 26.0%와 30.0%(전체 평균 22.0%와 25.0%)로 높았다.
- 대학생활중에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에 37.0%(전체 평균 41.0%)로 낮으며,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에 25.0%(전체 평균 17.0%)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서어클활동에도 8.2%(전체 평균 8.4%)로 전체 평균 보다는 약간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에 5.7%(전체 평균 5.0%)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 어학 공부에 대하여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제1, 2외국어를 수시로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61.0%(전체 평균 60.0%)로 전체 집단과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싶다는 학생이 72.0%(전체 평균 69.0%)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 22.0%(전체 평균 24.0%)로 낮게 나타났다.
-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충실한 강의(24.0%→전체 평균 27.0%) 보다는 인간적 지도(67.0%→전체 평균 66.0%)를 더욱 바라고 있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 자신의 개인적 문제의 의논 상대가 형제(17.0%, 전체 평균 16.0%)와 본인 스스로

- (20.0%, 전체 평균 16.0%)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서어클활동을 하고 싶은 분야는 종교분야라고 응답한 학생이 4.1%(전체 평균 2.2%)와 봉사분야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8%(전체 평균 5.6%)로 다른 단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비 조달을 형제로 부터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2.5%(전체 집단 1.1%)로 타 단과대 학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다.
 - 대학생활동 아르바이트를 원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82.0%(전체 평균 7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폭 넓은 사회생활이 34.0%로 전체 평균 27.0%보다 높았고, 그리고 용돈 마련이 42.0%로 전체 평균 51.0% 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학비 마련이 11.0%로 전체 평균 6.4%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치 및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0%로 전체 평균 22.0%,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6.0%로 전체 평균 19.0% 보다는 약간 낮으며, 상호 불신문제는 16.0%로 전체 평균 15.0% 보다는 높았다.
 -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역개발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0.0%(전체 평균 38.0%)로 전체 평균 보다는 낮았으며, 문화의 낙후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6.0%(전체 평균 22.0%)로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4.1%(전체 평균 2.1%)로 사범대생 답게 타 단대생 보다는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또는 비교적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0.0%(전체 평균 78.0%)로 타 단대생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또한 그 중에서도 비교적 심각하다 60.0%(전체 평균 52.0%)로 다른 대학생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대학 졸업(병역을 필한)후의 계획에서는 취직을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59.0%(전체 평균 57.0%)로 높았으며, 대학원에 진학을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30.0%(전체 평균 22.0%)로 다른 단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직업을 선택할 경우의 기준으로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로 58.0%(전체 집단 42.0%)를 차지하여 전체 집단 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이는 다른 단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에 44.0% (전체 평균 60.0%)로 낮은 반면에,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에 18.0%(전체 평균 8.3%), 그리고 사회적으로 남을 지도하는 생활에 15.0%(전체 평균 6.6%)와 진리 탐구에 헌신하는 생활에 11.0%(전체 평균 6.8%)로 이는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제반문제에 대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은 63.0%(전체 집단 56.0%)로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분야로는 취업문제에 16.0%(전체 집단 16.0%), 교우 및 대인관계에 15.0%(전체 집단 15.0%)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19.0%(전체 집단 15.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5) 농과대학

농과대학 신입생들은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들(전체 평균)에 비해,

- 남학생의 비율이 74.5%(전체 평균 55.3%)로 아주 높았다.
- 출생 순위는 첫번째로 태어난 학생의 비율이 39.0%(전체 평균 29.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생의 본적지는 대부분 제주도내(전체 평균 87.6%)인데, 그 중에서도 애월읍에서 태어난 학생의 비율은 10.0%(전체 평균 8.6%)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다.
- 학생이 입학후 거주를 기숙사에서 하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 13.0%(전체 집단 2.7%)로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많았다.
- 졸업과 동시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85.0%(전체 평균 86.0%)로 전체 평균 보다는 낮은 반면에, 재수생의 비율은 14.9%(전체 평균 13.8%)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건강 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98.0%(전체 평균 95.0%)로 거의 대다수의 학생이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가 95.7%(전체 평균 96.3%)로 전체 평균 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며, 보호자의 연령은 40~50대가 95.0%(전체 평균 93.0%)로 다른 단

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보호자의 학력이 중졸 이하가 32.5%(전체 평균 36.4%)로 낮았으며, 대졸 이상은 29.8%(전체 평균 28.0%)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은 반응이었다.
- 학생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모 모두가 살아계신 학생의 비율이 92.0%(전체 평균 91.0%)로 다른 대학에 비해 높았으며, 반면에 부모 어느 분이든, 또는 모두가 돌아가신 학생은 8.2%(전체 평균 9.1%)로 전체 평균 보다는 낮았고, 가족 수는 6명 이상의 비율이 38.7%(전체 평균 48.9%)로 타 단과대 신입생에 비하여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 가족 거주지는 가족이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78.4%(전체 평균 93.5%)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낮은 반면에, 도외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은 21.2%(전체 평균 5.1%)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 자기집인 경우가 88.0%(전체 평균 87.0%)로 전체 평균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12.0%(전체 평균 12.9%)로 전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 학생 가정의 월 수입이 99만원 이하인 경우가 40.5%(전체 집단 43.7%)로 다른 대학에 비해 낮은 편이며, 100만원 이상인 가정이 45.0%(전체 집단 36.0%)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 수준은 가정의 월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데, 중하~하가 43.7%(전체 집단 51.1%)로 타 단과대학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낮게 응답한 반면에, 상~중상이 54.5%(전체 집단 43.5%)로 타 단과대학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분포였다.
-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하다(언제나 화목 또는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7.2%(전체 평균 73.8%)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반면에 화목 못하다(화목치 못한 편이다 또는 전혀 화목치 않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1.0%(전체 평균 2.7%)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보다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가정에서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전체적으로 다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에 65.0%로 1순위이며, 둘째는 지나치게 보호·간섭하고 있다가에 15.0%, 그리고 세번째가 엄격히 통제한다에 10.0%로 나타났는데, 그 중 지나치게 보호·간섭하고 있다가에 23.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았다.
- 학생 가정에서의 문제점을 경제문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6.0%(전체 평균

23.0%)로 다른 대학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견해 차이라고 '문제 점을 지적한 학생의 비율은 45.0%(전체 평균 38.0%)로 다른 대학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가족중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느냐는 질문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의논하는 학생은 34.0%(전체 평균 30.7%)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특히 아버지와 의논하는 학생은 11.0%(전체 평균 8.7%)로 다른 단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대학 진학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한 비율이 25.0%(전체 평균 26.0%)로 낮았고, 폭 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6.0%(전체 평균 20.0%)로 높았다.
-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로는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1.0%(전체 평균 33.0%)로 높았으며,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의 비율은 20.0%(전체 평균 19.0%)로 높게 나타났다.
-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긍심에 대한 물음에는 그저 그렇다와 브끄럽게 생각하는 학생은 65.5%(전체 평균 74.6%)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34.0%(전체 평균 25.0%)로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한 요인은 직업적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2.0%(전체 평균 27.0%)로 낮게 나타났으며, 적성을 고려한 학생의 비율은 9.2%(전체 평균 25.0%)로 아주 낮게 나타났고, 입학 가능성은 40.0%(전체 평균 24.0%)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즉 학과 선택시 직업적 전망이나 적성 보다는 입학 가능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이 타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매우 특징적이다.
- 지망학과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약간 알고 있었다와 전혀 몰랐었다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0.0%(전체 평균 92.0%)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잘 알고 있었다에 9.7%(전체 평균 7.6%)로 타 단대 신입생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결정했다는 비율이 59.0%(전체 평균 45.0%)로 아주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교 3학년 2학기에서 중학교 또는 그 이전에 결정했다는 학생이 각각 25.0%, 11.0%, 2.9%(전체 평균 33.0%, 17.0%, 4.2%)로 낮게 나타났다. 즉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사전에 학과 선택에 있어 신중하

게 결정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는 학생은 49.0%(전체 평균 60.0%)로 낮은 반면에, 불만이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7%(전체 평균 5.2%)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정도를 물어 본 결과,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라고 한 학생은 90.0%(전체 평균 85.6%)로 높으며,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9.7%(전체 평균 13.7%)로 낮게 나타났다.
- 대학생활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학업성취와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에 응답한 학생은 각각 21.0%(전체 평균 각각 26.0%와 22.0%)로 낮게 나타났고, 진학문제는 27.0%(전체 평균 25.0%)로 높았다.
- 대학생활중에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에 34.0%(전체 평균 41.0%),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에 14.0%(전체 평균 17.0%)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서어클활동에 11.0%(전체 평균 8.4%)와 병역 관계와 아르바이트에 각각 7.2%(전체 평균 3.7%와 5.0%)로 전체 평균 보다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 어학 공부에 대하여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제1, 2외국어를 수시로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49.0%(전체 평균 60.0%)로 낮으며, 주로 제1외국어에만 주력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47.0%(전체 평균 36.0%)로 높게 반응을 나타냈다.
-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싶다는 학생이 72.0%(전체 평균 69.0%)로 높으며,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 23.0%(전체 평균 24.0%)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충실한 강의(21.0%→전체 평균 27.0%) 보다는 인간적 지도(74.0%→전체 평균 66.0%)를 더욱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 자신의 개인적 문제의 의논 상대가 부모(7.2%~14.0%, 전체 평균 4.2~10.0%)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다.
- 대학생활중 아르바이트를 절실히 원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5.0%(전체 평균 11.0%)로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폭 넓은

사회생활이 41.0%로 전체 평균 27.0% 보다 높았으며, 이는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고, 용돈 마련이 36.0%로 전체 평균 51.0% 보다 낮았으며, 학비 마련이 9.2%로 전체 평균 6.4%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치 및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2.0%(전체 평균 22.0%)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4.0%로 전체 평균 19.0%, 상호 불신문제는 14.0%로 전체 평균 15.0%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문제는 17.0%(전체 평균 13.0%), 정치인에 대한 불신문제는 14.0%(전체 평균 9.6%)로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역개발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0.0%(전체 평균 38.0%), 문화의 낙후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7.0%(전체 평균 22.0%)로 낮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농업문제는 26.0%(전체 평균 13.0%)로 농대생 답게 타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직업을 선택할 경우의 기준으로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로 38.0%(전체 집단 42.0%)를 차지하여 전체 집단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장래 전망에 12.0%(전체 집단 10.0%)로 높았고, 이는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제반문제에 대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은 61.0%(전체 집단 56.0%),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분야로는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18.0%(전체 집단 1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문제에 16.0%(전체 집단 16.0%)로 동일한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 유학문제에 대하여는 4.3%(전체 집단 3.3%)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신입생들은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들(전체 평균)에 비해,

- 남학생의 비율이 84.4%(전체 평균 55.3%)로 매우 높았다.
- 출생 순위는 세번째로 태어난 학생의 비율이 27.0%(전체 평균 21.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생의 성장지는 대부분 제주도내(전체 평균 91.7%)인데, 그 중에서도 서귀포시에 서 성장한 학생의 비율이 17.0%(전체 평균 14.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

-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학생이 입학후 자취를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22.0%(전체 집단 18.0%)로 타 단과대생들 보다는 가장 많았다.
 - 졸업과 동시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94.0%(전체 평균 86.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반면에 재수생의 비율은 6.0%(전체 평균 13.8%)로 타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
 - 학생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비율은 69.0%(전체 평균 61.0%)로 타 단과대 학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불교가 19.0%(전체 평균 17.0%)로, 이 또한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다.
 - 음주와 흡연여부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술과 담배를 마시거나, 피우는 학생의 비율은 87.0%(전체 평균 69.0%)와 50.0%(전체 평균 25.0%)로 대부분, 또는 반 정도가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가 98.0%(전체 평균 96.3%)로 타 대학의 신입생보다는 가장 높았으며, 그 중 보호자가 어머니인 경우의 학생 비율도 11.0%(전체 평균 9.3%)로 타 대학의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았다.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가 98.0%(전체 평균 96.3%)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어머니가 보호자인 경우도 11.0%(전체 평균 9.3%), 또 보호자의 연령도 40~50대가 95.0%(전체 평균 93.0%)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보호자의 학력이 중졸 이하가 42.2%(전체 평균 36.4%)로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은 15.8%(전체 평균 28.0%)로 낮았다.
 - 보호자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경우가 71.4%(전체 평균 76.9%)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에,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평균 22.0% 보다 높은 27.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하다(언제나 화목 또는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7.8%(전체 평균 73.8%)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면에 화목 못하다(화목치 못한 편이다 또는 전혀 화목치 않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1.8%(전체 평균 2.7%)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에 비해 비교적 낮은 분포

였다.

- 가족중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느냐는 질문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의논하는 학생은 24.4%(전체 평균 30.7%)로 다른 단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8.0%(전체 평균 22.0%)로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 대학 진학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와 폭 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0%(전체 평균 26.0%, 20.0%)로 높았다.
-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로는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9.0%(전체 평균 33.0%)로 높았으며,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의 비율은 20.0%(전체 평균 19.0%)로 높게 나타났다.
-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긍심에 대한 물음에는 그저 그렇다와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은 75.8%(전체 평균 7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24.0%(전체 평균 25.0%)로 낮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한 요인은 직업적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7.0%(전체 평균 27.0%)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적성을 고려한 학생의 비율은 16.0%(전체 평균 25.0%)로 낮게 나타났고, 입학 가능성은 39.0%(전체 평균 24.0%)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과 선택시 직업적 전망이나 적성 보다는 입학 가능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이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들 보다는 특징적이었다.
- 지방학과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약간 알고 있었다와 전혀 몰랐었다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7.0%(전체 평균 92.0%)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잘 알고 있었다에 2.4%(전체 평균 7.6%)로 다른 단과대 학생 보다는 아주 낮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결정했다는 비율이 59.0%(전체 평균 45.0%)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 고교 3학년 2학기중에 결정했다는 학생이 각각 34.0%(전체 평균 33.0%)로 조금 높았다.
-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는 학생은 46.2%(전체 평균 60.0%)로 낮은 반면에, 불만이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8.4%(전체 평균 5.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정도를 물어 본 결과,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라고 한 학생은 90.0%

- (전체 평균 85.6%)로 높으며,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9.6%(전체 평균 13.7%)로 낮게 나타났다.
- 대학생활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학업성취와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에 응답한 학생은 각각 18.0%와 19.0%(전체 평균 각각 26.0%와 22.0%)로 낮게 나타났고, 진학문제는 31.0%(전체 평균 25.0%)로 높은 반응이었다.
 - 대학생활중에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에 43.0%(전체 평균 41.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에 13.0%(전체 평균 17.0%)로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장학금 제도와 서어클활동에 각각 11.0%와 10.0%(전체 평균 7.0%와 8.4%)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 어학 공부에 대하여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제1, 2외국어룰 수시로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48.0%(전체 평균 60.0%)로 낮으며, 주로 제1외국어에만 주력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42.0%(전체 평균 36.0%)로 높게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농과대학 신입생과 비슷한 현상임을 알 수가 있었다.
 -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싶다는 학생이 72.0%(전체 평균 69.0%)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 19.0%(전체 평균 24.0%)로 낮게 나타났다.
 -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충실한 강의(26.0%→전체 평균 27.0%) 보다는 인간적 지도(67.0%→전체 평균 66.0%)를 더욱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신의 개인적 문제의 의논 상대가 친구(48.0%→전체 평균 42.0%)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서어클활동을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스포츠분야에 27.0%(전체 평균 18.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다.
 - 주로 읽고 싶은 도서는 문학 및 취미도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2.0%(전체 집단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치 및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9.0%로 전체 평균 22.0% 보다는 낮으며,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0.0%(전체 평균 19.0%)로 약간 높았고, 상호 불신문제는 14.0%로 전체 평균 15.0% 보다는 낮았다. 그런 반면에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청소년 비행문제를 가

장 높게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5.0%(전체 평균 38.0%)로 높았으며, 문화의 낙후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4.0%(전체 평균 22.0%)로 낮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상공업의 약화에 6.6%(전체 평균 4.0%)로 다른 단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또는 비교적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71.0%(전체 평균 78.0%)로 타 단대 신입생 보다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심각하지 않은 편 또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8.4%(전체 평균 5.4%)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실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2.0%(전체 평균 52.0%)로 낮았으며, 인격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9.0%(전체 평균 5.9%), 인간관계라고 한 학생은 19.0%(전체 평균 12.0%)로 다른 단과대생 보다는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에 68.0%(전체 평균 60.0%),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에 18.0%(전체 평균 13.0%)로, 이는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 제반문제에 대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은 51.0%(전체 집단 56.0%)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분야로는 취업문제에 17.0%(전체 집단 16.0%)로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13.0%(전체 집단 15.0%), 교우 및 대인관계에 12.0%(전체 집단 15.0%)로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이성 및 성문제는 4.8%(전체 집단 2.2%)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7)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신입생들은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들(전체 평균)에 비해,

- 여학생의 비율이 46.7%(전체 평균 44.7%)로 약간 높았다.
- 출생 순위는 두번째로 태어난 학생의 비율이 30.0%(전체 평균 25.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생이 입학후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22.0%(전체 집단 18.0

%)로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많았다.

- 졸업과 동시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89.0%(전체 평균 86.0%)로 높은 반면에, 재수생의 비율은 10.7%(전체 평균 13.8%)로 낮았다.
-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부끄럽다 또는 대단히 부끄럽다)하는 학생의 비율은 7.7%(전체 평균 6.3%)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가 97.2%(전체 평균 96.3%)로 전체 평균 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또 보호자의 연령도 40~50대가 94.0%(전체 평균 93.0%)로 역시 높게 반응하였다.
- 학생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모 모두가 살아계신 학생의 비율이 93.0%(전체 평균 91.0%)로 다른 대학에 비해 가장 높은 반면에, 부모 어느 분이든 돌아가신 학생은 7.3%(전체 평균 9.1%)로 전체 평균 보다는 낮았으며, 가족수가 6명 이상의 비율이 46.7%(전체 평균 48.9%)로 타 단과대 신입생에 비하여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 가족 거주지는 가족이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91.7%(전체 집단 93.5%)로 전체 집단 보다 낮은 반면에, 도외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은 6.4%(전체 집단 5.1%)로 전체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 자기집인 경우가 83.0%(전체 평균 87.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에,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16.1%(전체 평균 12.9%)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보호자의 직업 및 직종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첫째 순위가 농업(35.0%)이며, 다음이 상업(17.0%), 셋째 순위가 공무원(11.0%)인데, 그 중 둘째 순위인 상업이 20.0%(전체 평균 17.0%)로 타 단과대생 보다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 대학 진학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한 비율이 27.0%(전체 평균 26.0%)로, 폭 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1.0%(전체 평균 20.0%)로 높았다.
-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로는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9.0%(전체 평균 33.0%)로 높았으며,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의 비율은 18.0%(전체 평균 19.0%)로 낮았다.
-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긍심에 대한 물음에는 그저 그렇다와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

생은 80.0%(전체 평균 7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20.0%(전체 평균 25.0%)로 타 단과대학 학생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한 요인은 직업적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0%(전체 평균 27.0%)로 낮게 나타났으며, 적성을 고려한 학생의 비율은 26.0%(전체 평균 25.0%)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입학 가능성은 31.0%(전체 평균 24.0%)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학과 선택시 직업적 전망이나, 적성 보다는 입학 가능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이 특징이었다.
- 지망학과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약간 알고 있었다와 전혀 몰랐었다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2.0%(전체 평균 92.0%)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었다에 6.4%(전체 평균 7.6%)로 타 단과대 신입생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결정했다는 비율이 48.0%와 35.0%(전체 평균 45.0%와 33.0%)로 다소 높았다.
-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는 학생은 49.4%(전체 평균 60.0%)로 낮은 반면에, 불만이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9.4%(전체 평균 5.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정도를 물어 본 결과,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라고 한 학생과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79.2%와 20.9%(전체 평균 85.6%와 13.7%)로 나타났다.
- 대학생활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학업성취, 성격 및 대학생활의 적응, 그리고 진학문제에 응답한 학생은 각각 29.0%, 24.0%와 27.0%(전체 평균 각각 26.0%, 22.0%, 25.0%)로 높게 반응하였다.
- 대학생활중에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에 42.0%(전체 평균 41.0%)로 높으며,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에 13.0%(전체 평균 17.0%)로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장학금 제도와 서어클활동에 각각 8.2%와 11.0%(전체 평균 7.0%와 8.4%)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어학 공부에 대하여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제1, 2외국어를 수시로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57.0%(전체 평균 60.0%)로 낮으며, 주로 제1외국어에만 주력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38.0%(전체 평균 36.0%)로 높게 반응을 나타

냈다. 이는 농과대와 해양대 신입생들과 같이 비슷한 현상임을 알았다.

-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싶다는 학생이 73.0%(전체 평균 69.0%)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 22.0%(전체 평균 24.0%)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충실한 강의(22.0%→전체 평균 27.0%) 보다는 인간적 지도(73.0%→전체 평균 66.0%)를 더욱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과대 신입생들과 같이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 서어클활동을 하고 싶은 분야에는 취미분야라고 응답한 학생이 38.0%(전체 평균 31.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치 및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1.0%로 전체 평균 22.0%,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8.0%(전체 평균 19.0%)로 약간 낮았고, 상호 불신문제는 15.0%로 전체 평균 15.0%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 반면에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사회질서문제(15.0%, 전체 평균 11.0%)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역개발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5.0%(전체 평균 38.0%)로 낮았으며, 문화의 낙후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2.0%(전체 평균 22.0%)로 동일하게 응답하였다. 그런 반면에 환경보존문제에 14.0%(전체 평균 11.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 제반문제에 대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은 58.0%(전체 집단 56.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분야로는 교우 및 대인관계 문제에 21.0%(전체 집단 15.0%),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17.0%(전체 집단 1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문제에 16.0%(전체 집단 16.0%)로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8) 공과대학

공과대학 신입생들은 다른 단과대학 신입생들(전체 평균)에 비해,

- 남학생의 비율이 71.9%(전체 평균 55.3%)로 아주 높았다.
- 학생의 성장지는 대부분 제주도내(전체 평균 91.7%)인데, 그 중에서도 서귀포시에서 성장한 학생의 비율이 17.0%(전체 평균 14.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

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졸업과 동시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84.0%(전체 평균 86.0%)로 낮은 반면에, 재수생의 비율은 15.8%(전체 평균 13.8%)로 높은 반응이었다.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가 98.0%(전체 평균 96.3%)로 타 대학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다. 또 보호자의 연령은 40~50대가 93.0%(전체 평균 93.0%)로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 학생 부모의 생존여부를 알아본 결과, 부모 모두가 살아계신 학생의 비율이 91.0%(전체 평균 91.0%)로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부모 어느 분이든, 또는 모두 돌아가신 학생은 8.5%(전체 평균 9.1%)로 전체 평균 보다는 낮았고, 가족수가 6명 이상의 비율이 46.1%(전체 평균 48.9%)로 타 단과대 신입생에 비하여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 가족 거주지는 가족이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이 96.0%(전체 집단 93.5%)로 전체 집단 보다 높은 반면에, 도외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은 2.4%(전체 집단 5.1%)로 전체 집단 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이 자기집인 경우가 89.0%(전체 평균 87.0%)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10.0%(전체 평균 12.9%)로 다른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하다(언제나 화목 또는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8.5%(전체 평균 73.8%)로 다른 단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화목 못하다(화목치 못한 편이다 또는 전혀 화목치 않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1.8%(전체 평균 2.7%)로 다른 단대 신입생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 가족중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느냐는 질문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의논하는 학생은 29.0%(전체 평균 30.7%)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그 중 특히 아버지와 의논한다는 학생의 비율은 11.0%(전체 평균 8.7%)로 다른 단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9.0%(전체 평균 22.0%)로 다른 단대 신입생 보다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대학 진학의 가장 큰 목적은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0%(전체 평균 26.0%)로 높았다.
- 제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로는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이 36.0%(전체 평균 33.0%)로 높았으며, 우리 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한 학생의 비율은 14.0%(전체 평균 19.0%)로 낮게 나타났다.

-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자긍심에 대한 물음에는 그저 그렇다와 부끄럽게 생각하는 학생은 77.5%(전체 평균 74.6%)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20.0%(전체 평균 25.0%)로 타 단과대학 신입생 보다는 낮은 반응을 보였다.
-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려한 요인은 직업적 전망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2.0%(전체 평균 27.0%), 적성을 고려한 학생의 비율은 29.0%(전체 평균 25.0%)로 평균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입학 가능성은 17.0%(전체 평균 24.0%)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학과 선택시 입학 가능성 보다는 직업적 전망이나, 적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이 특징이었다.
- 지망학과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약간 알고 있었다와 전혀 몰랐었다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2.0%(전체 평균 92.0%)로 같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었다에 6.1%(전체 평균 7.6%)로 낮게 나타났다.
-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결정했다는 비율이 65.0%(전체 집단 45.0%)로 아주 높게, 그리고 고교 3학년 2학기중에 결정했다는 학생이 38.0%(전체 집단 33.0%)로 전체 집단 보다는 높았다.
-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매우 만족 또는 다소 만족)는 학생은 65.0%(전체 평균 60.0%)로 높은 반면에, 불만이다(불만 또는 매우 불만)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4.5%(전체 평균 5.2%)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생활에서의 적응 정도를 물어 본 결과, 적응할 것이다(매우 잘 적응 또는 잘 적응)라고 한 학생은 85.0%(전체 평균 85.6%)로 별 차이가 없으며, 부적응할 것이다(적응하기 또는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4.3%(전체 평균 13.7%)로 높게 나타났다.
- 대학생활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학업성취에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2.0%(전체 평균 2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 및 대학생활 적응과 진학문제에 응답한 학생은 각각 20.0%(전체 평균 각각 22.0%와 25.0%)로 낮았다.
- 대학생활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는 학업성취, 성격 및 대학생활의 적응, 그리고 진학문제에 응답한 학생은 각각 29.0%, 24.0%, 27.0%(전체 평균 각각 26.0%, 22.0%, 25.0%)로 높게 나타났다.

- 대학생활중에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에 46.0% (전체 평균 41.0%)로 높으며, 전공학과의 교육 내용에 13.0%(전체 평균 17.0%)로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장학금 제도와 해외 유학에 각각 7.0%(전체 평균 7.0%와 6.2%)로 같거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어학 공부에 대하여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은 극소수이며, 제1, 2외국어룰 수시로 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은 43.0%(전체 평균 60.0%)로 낮으며, 주로 제1외국어에만 주력하겠다는 학생의 비율이 54.0%(전체 평균 36.0%)로 높게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농과대, 해양대와 자연대 신입생들과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갖고 싶다는 학생이 65.0%(전체 평균 69.0%)로 낮으며,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은 학생의 비율이 26.0%(전체 평균 24.0%)로 약간 높게 반응하였다.
-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충실한 강의(25.0%→전체 평균 27.0%) 보다는 인간적 지도(66.0%→전체 평균 66.0%)를 더욱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치 및 부정부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5.0%로 전체 평균 22.0% 보다 높았으며, 빈부의 격차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7.0%로 전체 평균 19.0%, 상호 불신문제는 13.0%로 전체 평균 15.0% 보다는 낮았다.
-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지역개발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1.0%(전체 평균 38.0%)로 높았으며, 문화의 낙후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1.0%(전체 평균 22.0%)로 낮게 나타났다.
-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또는 비교적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73.0%(전체 평균 78.0%)로 타 단대생 보다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심각하지 않은 편 또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0%(전체 평균 5.4%)로 다른 대학생 보다는 높게 응답하였다.
-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실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57.0%(전체 평균 52.0%)로 타 단과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았다.
- 직업을 선택할 경우의 기준으로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로 39.0%(전체 집단 42.0%)를 차지하여 전체 집단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의 전문성에 25.0%(전체 평

- 군 18.0%)로 높았고, 이는 다른 단대 신입생들 보다는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 제반문제에 대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상담을 받고 싶다는 학생의 비율은 55.0%(전체 집단 56.0%)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분야로는 취업문제에 17.0%(전체 집단 16.0%), 진학문제에 12.0%(전체 집단 10.0%)로 높게 나타났고, 교우 및 대인관계와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각각 11.0%(전체 집단 각각 15.0%)로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고등학교때 까지 타율에 의한 교육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 온 이상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자율인으로서의 인격도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측은 신입생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성의있게 해결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직원,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화로운 조직속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해야 하며, 학생지도는 근본적으로 문체 학생만이 그 대상이긴 하지만,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활 동안에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